Weekly 공감

더 큰 대한민국

No.50
2010.03.03



연아의 눈물 대한민국은 행복합니다

기획특집 인성·학력 함께 키우는 당당한 교육개혁



그린카드의 영광!



일반 축구경기에서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는 불명예스런 반칙의 상징물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축구경기에만 있는 그린카드는 상대편 선수들을 일으켜 세우거나 도와주는 등, 페어플레이를 하는 선수나 감독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시각장애인축구 국가대표 이옥형 감독은 6세 때 시각을 잃었지만 인생의 페어플레이를 실천한 진정한 '그린카드' 입니다.
스포츠는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창이며,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스포츠 활동으로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SAD 대한장애인체육회 www.kosad.or.kr

교육,
즐거운 변화가 시작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이고,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일류국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엄청난 교육열이 큰 몫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현재의 획일화된 교육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또한 공교육이 신뢰받지 못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행복하지 못한 우리 교육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합니다.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2년간 많은 교육개혁 정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첫째, 우리 교육의 방향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입시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창의적이고 리더십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의 점수 위주 대학입학 방식을 벗어나 학생들의 잠재력, 재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이 그것입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면 사교육과 암기 위주 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보다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여 학창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도 유리해지고, 이에 따라 교육 풍토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아이들이 학교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고, 창의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기숙형고', '자율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만들고, 학생 능력과 교과 특성을 반영한 수준별·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는 '교과교실제'를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가난하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소외되어 있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자금을 대출받고 졸업 후 소득을 얻게 되면 갚아나가는 '든든학자금'이 올 1학기부터 시작되었으며, 농산어촌에 전원학교를 확대해 도시보다 오히려 앞서는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부적응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Wee 프로젝트'를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내실화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병폐인 사교육비 경감에 주력하였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책임이 강화돼야 합니다. 교육 경쟁력의 핵심인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올해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체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해 수준에 맞는 학습을 강화하도록 하는 '학업성취도평가'도 공교육의 책임도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EBS, 방과후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등 공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와 제도를 파격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교육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변화를 많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마련된 정책들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서서히 변화의 모습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개혁 정책들을 현장에 착근시키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많이 소통하고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즐거운 변화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G

Weekly
2010.03.03
No.50(통권 151호)

Contents



표 지 이 야 기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가 엮어낸 '세기의 빙연(氷演)'을 보며 떠오른 비유다. 1인자와 2인자. 아무리 몸부림쳐도 따라갈 수 없는 경지. 둘 사이에 까마득한 높이로 가로놓인 벽. 바로 저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로 쌓아올린 지존의 벽.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3.0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 획 특 집

교육개혁, 큰 희망을 싹틔우다

새봄, 새 학기 희망을 노래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정선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방과후 학교, 기술 명장을 꿈꾸는 예걸이가 선택한 마이스터고, 도시 학교처럼 원어민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농산어촌학교, 전교생이 음악과 운동을 신나게 즐기는 자율형 학교, 성적보다는 열정과 재능을 높이 사는 고교와 대학들…. 희망은 길과 같아서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교육개혁이 그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봄날 햇살처럼 화사하게 웃는 그날까지 교육개혁은 계속됩니다.



공감 라운지

GONGGAM KOREA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49호(2월 24일자) 기획특집 '국민과 함께한 2년, 위기를 넘어 미래로'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Me First' 녹색성장 나부터 준비해야"

"캐치프레이즈만 거창한 줄 알았는데 녹색성장 관련 기사를 보고 정부가 그동안 녹색성장을 착실히 준비해왔다는 믿음이 생기네요. 이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게 됐습니다. 세계 녹색성장의 허브로 도약하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조해야죠. 머리에 스프레이도 그만 뿌리고 음식도 남기지 않아야겠네요. 살도 찌고 스타일이 좀 구겨지겠지만 그래도 나라가 잘돼야 저도 잘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_김승주

"'이명박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기사 중 국격 관련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알리는 1등 도우미가 된 막걸리가 새삼 자랑스럽습니다. 한식의 세계화 정책과 함께 다양화, 고급화를 거듭하며 막걸리는 이제 한국인만의 술이 아닌 세계인의 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글로벌 시대의 중심국가로 부쩍 자란 느낌입니다. 코리아, 파이팅!"_이명현

"기획특집 기사를 읽으면서 교육 관련 기사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자녀들이 학교만 다니고도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교육비로 고생하는 학부모들도 조금은 살 만해지겠죠."_이순호

"남은 3년도 서민 위한 정책 이어졌으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맞이해 국민들이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한 '이런 한국 됐으면…' 기사가 가장 눈에 띕니다. 교육, 복지 문제의 해결을 희망한 주부의 이야기, 청년실업 해소를 바랐던 대학원생의 이야기 등 우리 주변에 산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아마 정부 측에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도 수고했지만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더욱 국민을 보듬고 아끼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줬으면 합니다."_김수래

49호 화제 인물 '명장의 혼, 숭례문 복구하는 도편수 신응수씨'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불에 타 훼손된 국보 1호 숭례문을 너무나 안타깝게 지켜봤는데, 복구 작업이 시작됐다는 반가운 내용과 함께 도편수 신응수 씨의 기사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온 국민의 성원 속에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의 숭례문을 다시 볼 날을 기다리겠습니다."_홍대욱

49호 공간 공감 '〈북촌탐닉〉 펴낸 영화칼럼니스트 옥선희' 기사를 보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겨우내 찌뿌드드했던 몸을 풀려고 며칠 전 남편과 함께 북촌 데이트를 다녀왔습니다. 미리 옥선희 씨의 기사를 읽어서인지 북촌의 풍경이 새삼 더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정겹게 이어지는 지붕들의 모습이며 구불구불 이어지는 골목길을 걷다 보니 이곳이야말로 서울의 명당이 아닐까 싶더군요._정유련





알립니다

새만금 깃발축제가 열립니다!

전북 군산과 부안을 잇는 새만금 방조제 도로(33킬로미터)가 4월 개통된다. 방조제 도로 개통을 기념하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열흘간 신시도 앞 광장 등 새만금 일대에서 깃발축제를 연다.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가 주최하는 깃발축제는 새만금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기세배(깃발) 놀이를 모티프로 만들었다. 세계 각국의 깃발을 새만금에 세워 '새만금 시대'를 기원하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꾸밀 예정이다.

축제는 '사람' '태양' '바람' '물' '대지'를 테마로 한 깃발 예술 갤러리를 중심으로 세계 국기전, 이색 깃발전, 태극기 특별전 등의 다양한 깃발 전시를 벌인다. 전북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 특산품과 향토음식 등 문화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깃발을 활용한 패션 소품을 만드는 등 깃발 체험 관련 부대 행사도 열린다. 또 깃발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대학응원연합패 50명이 매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열정적인 깃발 응원 공연을 선사한다. 이 축제에는 국내외 전시 콘텐츠 작가 2백명이 참여하며 10만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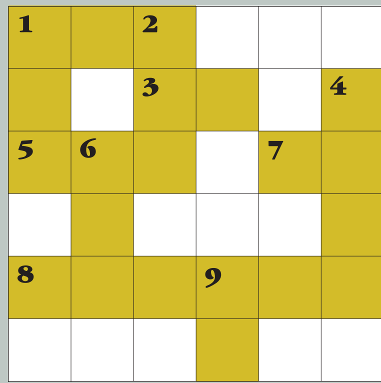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Tel **02-3704-9945 flagfestival.kr**

3대전심(三代傳心) '병역이행 명문가'를 찾습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국가안보의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의미에서 병역이행 명문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병역이행 명문가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역시 병역이행 명문가를 선정하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자격	3대 모두 현역의 병, 부사관, 장교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
신청 기간	2010년 3월 4일~4월 2일(30일간)
제출 서류	신청서, 재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가능한 자료)
신청 방법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방문 또는 FAX, 우편
선정 발표	2010년 5월 초 신청자 전원에게 개별통보
표창	최고의 병역이행 명문가 20가문(2010년 6월 중 시상식 개최)
문의	병무청 1588-9090 mma.go.kr

공감 ♥ 퍼즐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3월 10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가 로

1.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인 공자(孔子)를 높여 부르는 말.
3. 사람이나 작품, 물품 등을 일정한 조건 아래 널리 알려 뽑아 모으는 일. 자원봉사자 ○○. 사원 ○○.
5. 학교를 중심으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며 학교의 운영비를 확충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유지(有志)로 이루어진 모임. 지금은 학부모회로 이름이 바뀌었죠.
7. 됨됨이나 재능 따위를 가려서 뽑는 일. 신입생 ○○. 서류 ○○.
8. 대학이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활용해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좀 더 자유로운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

세 로

1.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 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을 말하죠. 사교육과 대립되는 말.
2.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어린이의 어머니나 누이들로 이루어진 모임. 모자회.
4.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물이 비슷하여 낫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결승전에서 만난 두 선수는 ○○○○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6. 중국 송나라, 명나라 때에 주돈이, 정호, 정이 등에서 비롯하고 주희가 집대성한 유학의 한 파. 이기설(理氣說)과 심성론(心性論). 우리나라에서는 길재, 정도전, 권근, 김종직에 이어 이이, 이황에 이르러 체계화된 학문이죠.
9. 대학에서 수시 모집이 아닌 원래 일정대로 신입생을 전형하는 방식을 이르는 말. "누나는 그 대학의 수시 전형에서 실패하고 ○○ 모집에서 합격했다."

〈Weekly 공감〉 48호(2월 10/17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금메달 **4** 슬기 **6** 피겨스케이팅 **9** 지레 **10** 스크린
세로 2 달러박스 **3** 봅슬레이 **5** 지피지기 **7** 겨레 **8** 케이크

〈Weekly 공감〉 48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세영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김현주 · 강원 삼척시 성남동
라영석 · 경기 의왕시 오전동
이현성 · 경남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천창희 · 경기 시흥시 매화동

독자들의 쓴소리, 단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합니다. 이 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는 주소, 연락처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의 글을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 공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임안성(72) 씨는 매주 〈Weekly 공감〉을 챙겨보는 열성 독자다. 처음에 접했을 때는 내용도 딱딱하지 않고 디자인도 산뜻해서 정책 홍보지인 줄 몰랐다는 그는 "〈Weekly 공감〉을 통해 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얻고 있다"고 했다.

〈Weekly 공감〉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대전에 볼일이 있어 내려가는 길에 KTX 열차를 탔는데 〈Weekly 공감〉이 앞에 있었어요. 정부 발행 잡지라고 하면 왠지 재미없고 고루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Weekly 공감〉은 디자인도 산뜻하고 내용도 딱딱하지 않더군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는 정책 정보도 다채롭게 소개돼 있었고요. 그래서 가정배달을 신청하게 됐고, 지금껏 잘 보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지.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소외계층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다양해진 것 같고요. 그런 기사를 읽을 때면 흐뭇했습니다.

〈Weekly 공감〉에 아쉬운 점은.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 굳이 꼬집으라면 정책 소개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성 기사와 재미있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인터뷰도 늘어났으면 합니다.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기사는.

갈수록 실버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골칫거리라고 여기기보다는 잘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 같은 실버 계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매주 연재해주면 좋겠습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공감 ♥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우향화 서울 성북구 보문동

1. '3·1정신 계승이 국가 발전 이끌 원동력' 기사를 읽으면서 3·1절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과 독립심, 국가 주체성, 외세 개입 반대 등의 마음 자세를 되새기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보다는 늘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주체성과 주인정신을 확고히 가질 때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은 계속되리라 확신합니다.
2.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막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일부 정책들이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촘촘하게 따뜻하게… 서민과 더 가까이' 기사를 읽고 서민을 위한 좋은 정책도 많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미소금융 등 서민과 밀접한 이 정책들이 앞으로도 잘 시행돼 많은 서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3. 3월이면 각 학교의 입학식이 진행됩니다. 이 무렵 특히 대학 입학식이나 MT 등에서 지나친 음주나 체벌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불거져 국민의 지탄을 받던 것이 떠오릅니다. 학교 입학 초기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생활을 위한 교육 전문가들의 좌담 기사가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삼동 부산 북구 화명동

1. '희망으로 단련된 스물하나… 눈부신 미래를 열다'를 읽고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21세의 젊은 선수들이 연일 '대박'을 터뜨려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줬다는 사실이 기특합니다. 보통 큰 시합에는 노련함과 경험이 중요한데, 우리의 젊은 국가대표 선수들은 자신감과 당당한 패기, 성취 욕구가 어느 나라 선수들보다 강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진 가운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신속하고 눈에 보이게 회복됐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비상경제 상황에 대비하는 정부의 발 빠른 정책과 노력, 정확하고 객관적인 해외경제 동향 분석 등이 어울려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고 확신합니다.
3. 이제 날이 풀리면서 봄이 찾아오는 듯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매년 가정이나 학교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과 대책, 주의사항 등을 소개했으면 합니다.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3월 3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에서 다룬 '교육개혁, 큰 희망을 싹틔우다'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더 좋은 세종시

모든 지역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세종시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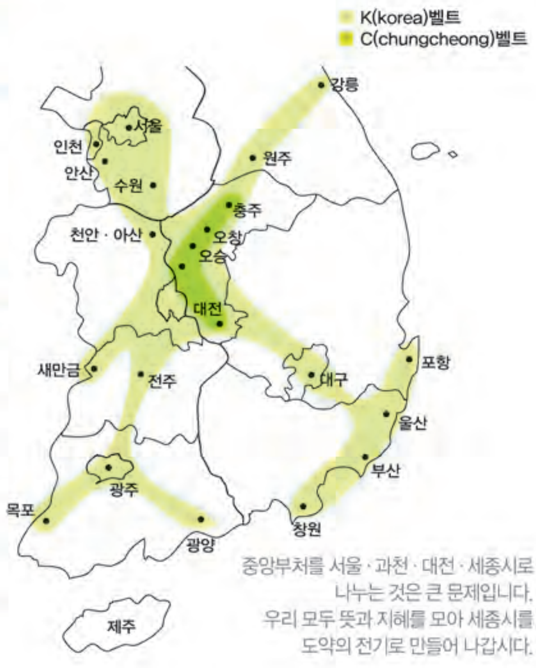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분산과 국토 발전에 효과가 큰 대기업과 대학이 입주합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나오는 과학기술과 창의적 인재는 다른 지역과 교류하며 확산돼 전체 국토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기업도시 · 혁신도시도 차별없이 지원합니다

세종시 인센티브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근 지역과 함께 하는 세종시 성공 모델은 국가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분권 · 특화 · 상생의 원칙으로 고루 발전시키겠습니다.

'5+2 광역경제권' 완성해 일류선진국가로 도약합시다

광역경제권 사업에 올해도 4조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기초과학에 초점을 맞추고 광역경제권은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서울 · 과천 · 대전 · 세종시로 나누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뜻과 지혜를 모아 세종시를 도약의 전기로 만들어 나갑시다.

행정·의료·농업·교육 등 지원

한국 민간재건팀 아프간 간다

오랜 내전의 상처를 입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위해 민간 주도의 대한민국 지방재건팀(PRT)이 오는 7월 파르완주(州)에 파견되며, PRT 보호를 위해 우리 군도 함께 파병된다. 테러에 지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금 세계 각국이 PRT사업을 펼치며 재건을 돕고 있다. 유엔, G20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이 점증하는 한국, 이제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의 메마른 땅에 희망을 심을 차례다.

여성을 억압하는 탈레반의 율법에 저항하다 조국을 탈출한 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은 캐나다에서 저널리스트로 새 삶을 살던 어느 날 고국에서 날아온 편지를 받는다. 개기일식이 있는 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여동생의 절망적인 편지다. 여동생을 구하고자 아프가니스탄으로 귀향한 이 여성의 눈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비참한 실정을 세계에 고발한 영화가 〈칸다하르〉(2002년)였다.

이란 감독 모흐센 마흐말바프는 이 영화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참상에 대한 세계인의 무관심에 절규했다. 2001년 말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마흐말바프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본 이래 밥을 먹는 나 자신마저 용서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내전과 기아, 가혹한 탈레반의 율법 그리고 20여 년간 지속된 내전, 9·11테러 이후의 대(對)테러전….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져온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세계인의 관심 속에 다시 일어서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의 고통과 슬픔을 덜어주는 행렬에 한국도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2월 2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및 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한 대한민국 지방재건팀(PRT·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과 이들을 보호할 국군부대를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에 파견키로 확정했다.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민간 PRT와 보호를 위한 파병을 결정한 것은 유엔과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0월 8일 제1890호 결의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국제안보지원군(ISAF)에 인력, 장비 및 기타 자원을 기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아프가니스탄 증파계획(3만명)을 발표했다.

민간 PRT 파견… 재건·복구 활동 지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지난해 12월 4일 이탈리아(1천명), 그루지야(9백명), 폴란드(6백명), 영국(5백명), 스페인(5백명) 등 25개국 이상이 약 7천명의 병력을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 추가로 보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ISAF 참여국이 계획대로 병력을 증파할 경우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상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2월 현재 ISAF에 참여한 다국적군은 미국과 NATO를 포함해 43개국 11만8천9백55명(미군 8만2백85명 포함)에 이른다. NATO가 주도하는 ISAF는 치안 유지 및 재건 지원 임무를 담당하고, 미군은 아프가니스탄 군경과 함께 탈레반 반군과의 대테러전을 수행하며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호응해 우리 정부는 PRT 설치를 결정하고 PRT 보호병력을 파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제출, 2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한국 지방재건팀 아프간 활동 예정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될 국군부대는 현지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



GAMMA

오랜 내전과 기아 등으로 고난이 이어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민국 지방재건팀(PRT)이 파견돼 희망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

AP



AFP



우리 정부는 2002~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국군 동의부대와 다산부대를 파견해 의료와 건설지원 활동을 했다.

해 야간투시경과 방탄헬멧 등 개인 보호장비, 급조폭발장치(IED)에 대처할 수 있는 장갑차량, 방탄바닥의 헬기 등 충분한 방호대책을 강구해 파견된다.

파견부대의 주 임무는 △우리 PRT 주둔지 경계 △PRT 요원들의 외부활동 호송 및 경호 △PRT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찰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 경비 등이다. 오는 3월부터 6월 말까지 인원 선발과 교육·훈련, 장비·물자 확보와 수송, 선발대 파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7월부터 PRT 보호 임무를 시작한다.

우리 군부대의 파견 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다. 파견 기간을 2년 반으로 명시하는 이유는 PRT 임무의 특성상 2, 3년이 지나야 성과가 달성되므로 PRT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과 예산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제안보지원군 파병국들은 장기 파견으로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PRT는 아프가니스탄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지방 PRT 거점을 중심으로 경제적 지원과 재건을 통해 개발 인프라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34개 주 중 31개 주에 15개국이 PRT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 PRT는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에 파견되어 지방정부의 행정능력 강화, 보건·의료, 농업·농촌개발, 교육·직업훈련, 경찰훈련 등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인력 1백여 명과 경찰인력 40여 명,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3백20명의 군 병력으로 구성된다.

군대 중심의 다른 나라 PRT와 달리 우리 PRT가 민간인을 대폭 참여시키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 농업·농촌개발, 교육·직업훈련 등 우리나라가 대외 원조사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최근 다른 나라 PRT도 군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민간 주도인 우리 PRT는 선도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 **“군대 중심의 다른 나라 PRT와 달리 우리 PRT가 민간인을 대폭 참여시키는 것은 보건·의료, 농업·농촌개발, 교육·직업훈련 등 우리나라가 대외 원조사업 중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번 파병이 기존 파병과 또 다른 점은 해외파병을 위해 ‘급조된’ 부대가 아니라 ‘준비된’ 부대가 간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역할 확대와 맞물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병력을 파견하기 위한 관련법이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올해 3천 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설부대를 편성한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는 군대는 해외파병 상설부대로 편성될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로, 평소 파병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받게 된다. 해외파병 상설부대는 △특전사 전단(1천명) △육해공 3군 예비부대(1천명) △공병, 기계화부대 등 지원부대(1천명)로 구성돼 효율적이고 신속한 파병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티에는 해외파병전담 부대 중 지원부대가 파견될 예정.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PRT 파견지인 파르완주의 치안 상태는 아프가니스탄 34개 주 가운데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60킬로미터 거리에 자리한 파르완주는 아프가니스탄 내전 당시 반(反)탈레반 연합세력의 주요 거점 중 하나였으며, 주민 대부분이 탈레반에 적대적인 타지크족과 하자라족으로 구성돼 있어 탈레반 세력의 활동이 제한적이다. 또 인근에 미 공군 바그람 기지가 위치하고 있어 유사시 미군의 신속한 지원도 가능하다.

해외파병 상설부대 편성 '준비된 국군' 보내

주도(州都)가 차리카인 파르완주의 면적은 서울의 10배가량, 인구는 70만명이며, 주민 대부분이 농사와 목축업에 종사한다. 대륙성 기후로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극심하다. 70퍼센트 이상이 산악지형이어서 도로 통행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장갑차와 헬기가 필수 장비다.

아프가니스탄은 1992년 무자헤딘이 구소련군을 축출한 이후 권력투쟁에 빠져 내전 상태에 들어갔으며, 1994년 마드라사(이슬람 학교)를 운영하던 물라 오마르가 이끈 탈레반이 세력을 얻기 시작해 1996년 9월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집권했으나 2001년 9·11테러 발생 이후 테러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돼 미군의 개입으로 실각했다.

탈레반은 집권 중 특히 여성의 교육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배척하는 극단적인 반여성주의,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꼽히던 바미얀 불상을 파괴하는 등 편협한 이슬람 원리주의를 앞세운 정치로 세계의 비난을 받아왔다. 탈레반은 실각 후 칸다하르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방을 근거지로 삼고 있으며, 현재도 지난해 11월 취임한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 정부군 및 미군을 상대로 테러전을 펼치고 있다.

불과 60여 년 전, 6·25전쟁으로 황폐해진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때다. 아프가니스탄에 희망을 주고 꿈을 심는 대한민국 PRT가 되기를 희망한다. G

글 · 박경아 기자

유재익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장

"우리 국민 보호가 최우선 임무"



조영철 기자

"이번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절대 대(對)테러전 참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내전으로 피폐된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할 목적으로 파견되는 대한민국 지방재건팀(PRT) 보호가 우리 군을 파병하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유재익(49) 국제평화협력과장은 이번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대테러전 참여가 아니라 우리의 민간 PRT를 위한 경계와 보호가 목적임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리 군의 미군 주도 대테러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해 유 과장은 "우리 군의 목적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소만 국외라는 점이 달라질 뿐 국민 보호라는 군의 원래 목적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상에 어떠한 군대도 기본적 전투능력을 갖추지 않은 군대는 없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군은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훌륭한 군대입니다. 다만 파병 목적이 우리 국민 보호일 뿐입니다."

유 과장은 "그러나 적대세력이 우리 PRT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러한 자위적 조치까지 대테러전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경계했다. 이전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이번 파병이 다른 점은 PRT사업 주체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번 파병이 일견 지난번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을 위한 파병과 같아 보이지만, 실은 그 파병 목적이 다릅니다. 지난번 파병 당시에는 우리 군이 직접 PRT를 수행했지만 이번에는 PRT 활동을 민간이 주도하고, 군은 민간 PRT에 대한 보호 임무를 펼치게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우리 국군 의료지원부대(동의부대)가 2002년 2월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국군 건설공병지원부대(다산부대)가 2003년 2월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파견돼 활동했으며, 각각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 병력을 철수한 바 있다. 동의부대는 동맹군 및 현지인 진료와 인도적 차원의 구호활동, 보건교육을 주요 업무로 수행했으며, 다산부대는 미군 및 동맹군 기지 토목과 건축공사 지원,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 경계 업무 지원을 수행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국제안보지원군(ISAF)에 참여해 활동 중인 국가가 이미 43개국에 이릅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하면 이러한 지원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죠."

유 과장은 "유엔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지난날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한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한국의 능력을 높게 평가해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복구 노력에 우리가 참여해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이번 PRT에 참여하게 될 민간 전문가와 군인들은 모두 자원자에 한해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국익, 또 어려운 지경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위해 우리 군과 민간이 척박한 땅에서 재건과 복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을 하고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게 된 이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채무비율 2013년부터 하락세로" 대한민국 재정건전성 '양호'합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확한 사정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걱정부터 할 일도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G20 국가 중에서 5번째로 건전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G20 국가 중 7번째로 양호하며, 2014년에는 재정수지가 GDP 대비 2.4퍼센트 흑자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1 지난해 11월 말, 아랍에미리트(UAE) 제2의 도시이자 경제수도인 두바이의 최대 국영기업 두바이월드와 그 자회사가 채무를 6개월 정도 연기해달라는 채무불이행(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두바이발(發) 쇼크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다.

#2 1월 14일 세계경제포럼(WEF)은 '2010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에 또 한 차례 충격을 줄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위험요소로 각국의 과도한 재정적자를 꼽는다.

#3 지난 2월 초 그리스 정부가 재정적자 재원 조달을 위해 추진하던 국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그리스 재정위기가 초래된다. 이후 재정이 양호한 국가들은 그리스 정부에 대한 금융지원 때문에,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등 재정이 불안한 국가들은 재정위기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느라 유럽연합(EU) 국가 전체가 몸살을 앓게 된다.

#4 지난 2월 초 일부 언론에서 2009년 9월 말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6백10조9천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23.1퍼센트나 증가했다고 보도한다. 공기업 부채는 국제기준에서도 국가채무와는 별개로 처리한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통계가 국제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가 선진국보다 작다는 정부의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그리스 재정위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그림자 부채', '정부로부터 떠넘겨진 부채' 등으로 표현하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가 정부 발표 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올 만한 기사들이 보도된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외환위기를 겪은 적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무턱대고 걱정만 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부실 처리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세입감소로 막대한 국가채무 증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위기 이전인 2007년 말 63.1퍼센트에서 2009년 84.8퍼센트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108.2퍼센트에 달할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 국가들 평균도 2007년 말 62.4퍼센트에

동아DB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다른 선진국이나 개도국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작다.

서 2009년 75.1퍼센트로 늘었으며, 2014년에는 85.9퍼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에 재정위기 사태를 맞은 그리스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말에 이미 95.6퍼센트에 달했고, 2009년에는 112.6퍼센트가 되었으며, 2011년에는 135.4퍼센트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말 사례 2나 3처럼 경제 전문가들이나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걱정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말 30.7퍼센트에서 2009년 35.6퍼센트로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2010년 36.1퍼센트로 증가세가 둔화된 후 2013년에는 35.9퍼센트로 하락할 전망이다. 다른 선진국이나 개도국과 비교해 금융위기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 수준 자체도 절반 이하로 매우 낮다.

더군다나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조만간 국가채무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미 2010년 예산안 편성 때부터 경기회복 지원 이외에 재정건전성 관리를 재정정책 목표로 설정해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를 지난해(GDP 대비 5퍼센트)의 절반 수준인 2.7퍼센트로 크게 줄인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09년 말 작성한 G20 회원국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G20 국가 중에서 5번째로 건전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G20 국가 중 7번째로 양호하며, 2014년에는 재정수지가 GDP 대비 2.4퍼센트 흑자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물론 현재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국가채무 통계가 완벽하지는 않다. 주요 선진국들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함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확정채무를 포함시키는데, 우리나라는 '현금주의 회계'에 따라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인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만 포함시킨다. 또한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2011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회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며, 현재 정부가 국가채무 통계 개편작업반을 구성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 경계… 국가채무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편 사례 1이나 4에서 문제가 된 공기업 부채는 국제기준 및 선진국 사례에서 정부부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국가채무 통계와 관련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 10년 가까이 국가채무 관련 통계와 관리 방안을 연구해온 재정 전문가로서 장담하건대, 선진국들이 발표하고 있는 정부부채 기준과 동일하게 우리나라 통계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정부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우리나라 국채의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용부도 스와프(CDS) 프리미엄이 0.8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증가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국제 금융시장이 정부부채에 한층 예민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동아DB

> **정부는 이미 2010년 예산안 편성 때부터 경기회복 지원 이외에 재정건전성 관리를 재정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그 결과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를 지난해(GDP 대비 5퍼센트)의 절반 수준인 2.7퍼센트로 크게 줄였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가채무 관리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국가채무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했으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성과도 있었으므로 이를 종합해서 평가해야 한다.

다만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지금부터는 국가채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비록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공기업 부채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소요 증가나 남북통일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G

글 · 박형수(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홍양호 통일부 차관

“북핵 불용·인도적 지원 ‘선택과 집중’ 대북 전략 이어갈 것”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 포기, 생산적 남북관계, 상호존중, 대화와 문호개방 등 남북관계에 대한 원칙을 천명했다. 최근 한 언론사가 전문가 1백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 2년을 평가한 결과 ‘원칙 있고 일관된 대북정책’이 공(功)으로 꼽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하게 출발해야 한다”고 믿는 대통령의 남북관계 원칙론을 바탕으로 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2년. 홍양호 통일부 차관에게 들어봤다.


조영철 기자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매우 유연하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방적 남북대화 중단, 개성공단 출입 통제, 제2차 핵실험 실시 등 강경정책을 지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강경조치에 맞대응하지 않고 일관된 원칙을 지키면서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왔습니다.”

홍양호(55) 통일부 차관은 우리 정부의 지난 2년간 대북정책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홍 차관은 행정고시 21회 출신으로 통일부 인도지원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등을 거쳐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통일부 차관을 맡아왔다. 통일 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사의 ‘산 증인’인 셈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높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강경조치에서 비롯된 안보 불안심리를 차단하고, 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 유지 발전을 위한 기반도 지속적으로 조성해왔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해외공단을 시찰해 개성공단의 발전을 모색했고, 기존의 경협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남북 간 교역액은 2008, 2009년 2년 동안 34억9천9백만 달러였습니다.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1퍼센트 증가한 것이죠.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대북지원도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해왔습니다. 대남 강경조치로 일관하던 북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유화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등의 해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큰데요.

지난해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국

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삼고 남북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완공했고 북한의 협조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상봉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2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들의 정착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 문제는 인도주의와 인권, 선진화와 복지, 통일 역량과 한반도의 미래 등과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하나원에서 가정까지' 체계적 정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원 시설의 수용 규모를 4백명에서 1천명 규모로 확충했고, 교육 기간도 8주에서 12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나센터는 2009년 6개가 시범 운영됐으며, 올해에는 전국에 모두 30개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전문상담사를 육성 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들의 취업도 적극 지원해 이들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사회적 기업'도 생겨났습니다.

탈북청소년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기 위한 정책은.

탈북청소년은 입국 당시 만 0세부터 20세까지 연령대입니다. 이들은 성인이 되면 우리 사회에서 제몫을 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에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거나 주선하고 있습니다. 2008학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초중고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9백66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국공립대학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사립대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등 학업 지원을 위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월에도 일부 개정했지만, 앞으로도 북한 이탈주민의 실정 변화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가 좀처럼 진전을 못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핵 불용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핵 문제 해결 없이 한반도는 물론 주변 정세가 안정되기 어렵고, 남북 교류협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주요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진전을 위한 결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아DB



지난해 12월 경기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북한에 전달할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 40만명분과 리렌자 10만명분을 실은 냉장트럭이 개성으로 가기 위해 수속을 밟고 있다.

> **"그동안 북한의 강경조치에서 비롯된 안보 불안심리를 차단하고, 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대북지원도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했고요. 대남 강경조치로 일관하던 북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유화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제안했고, 그 이후 근본적, 포괄적 해결방안으로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일괄타결)'을 제안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통해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의 이행을 구체화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0년의 통일정책 방향은.

대통령께서 올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첫째, 원칙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계속 추구하여 북핵 문제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선택과 집중'의 대북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통일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고 선진민주통일국가로 가는 실질적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포효하는 '피겨 여왕' 김연아. 올림픽 금메달이 결정된 프리스케이팅에 앞서 열린 쇼트프로그램에서도 여왕다운 카리스마가 철철 넘친다.

Vancouver Olympic 2010





연합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백미터 금메달을 일군 이상화의 발바닥. 굳은살 두께만큼이나 쌓인 노력이 엿보인다.

바로 이거야!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만미터에서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한 이승훈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



동아DB

우리 메달 어때요? 한국의 효자종목인 쇼트트랙 남녀 선수들. 왼쪽부터 이호석, 이은별, 이정수, 박승희.



불가능은 없다

동계올림픽 금메달 러시
이 대통령 3월 3일 선수단 청와대 오찬 초청

울었다. 금메달을 향한 마지막 연기를 펼친 김연아는 자신도 모르게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피겨 여왕' 김연아도 꿈을 이룬 감격 앞에서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2월 26일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프리스케이팅에서 김연아는 '완벽 연기'를 선보이며 역대 세계 최고점수로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연아뿐 아니다. 모태범과 이상화가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5백미터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을 비롯해 쇼트트랙 다관왕 이정수,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만미터 쾌거의 주인공 이승훈 등 연일 이어진 밴쿠버의 낭보는 온 국민에게 벅찬 기쁨을 안겨줬다. 국민들은 단지 금메달에만 환호하지 않았다. 5번째 도전한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한 이규혁을 격려하며 '마음의 금메달'을 선사했으며, 올림픽 5연패에 실패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에겐 '당신들이 진정한 승리자'란 격려가 날아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3일 선수단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G

글 · 박경아 기자

연합

연합



덩실덩실 절로 춤이 나온다.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5백미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모태범은 어디서도 당당한 신세대였다.

동아DB



"안 되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슬펐다"던 이규혁. 당신은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영원한 맏형입니다!

동아DB



올림픽 5연패의 위업을 납득하기 힘든 심판 판정으로 날려버린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기억합니다! 그대들이 진정 승자였음을….

보건복지가족부 사랑의 열매

당신의 꿈에 날개를 달아 드립니다

당신이 모은 저축액에 최대 6배(4인가족기준)를
더해 목돈을 만들어 드립니다



목적

취업한 기초수급자 대상 자립자금 지원으로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액(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민간지원금 매칭 적립 ▶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자에 대해서는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및 창업자금 지원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의 추가 혜택 부여 계획 (선정 후 별도 통보)

지원대상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가구(18천 가구)

* 자활근로소득 제외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원/월)	353,041	601,123	777,643	954,164	1,130,684	1,307,205

*소득 기준 하한선 (10년 최저생계비 기준)

기획특집

교육개혁
큰 희망을 싹틔우다

새봄, 새 학기. 희망을 노래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정선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방과후 학교, 기술 명장을 꿈꾸는 예결이가 선택한 마이스터고, 도시 학교와 차별 없이 원어민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농산어촌학교, 전교생이 음악과 운동을 신나게 즐기는 자율형 학교, 성적보다 열정과 재능을 높이 사는 고교와 대학들….
대한민국 교육에 큰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작가 루쉰은 말합니다. 희망은 길과 같아서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된다고. 교육개혁이 그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봄날 햇살처럼 화사하게 웃는 그날까지 교육개혁은 계속됩니다.



일러스트 · 김영민

사교육비 드디어 줄고 있다

정부의 사교육비 줄이기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사교육비 지출액이 2001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눈에 띄게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철 기자

자율형고, 마이스터고, 기숙형학교 등 다양한 공교육 살리기 실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환한 웃음을 찾아주고 있다. 사진은 자율형 공립고의 성공 모델로 꼽히는 와부고등학교.

"서민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사교육 부담입니다.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사교육을 줄여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고품질 공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확실히 끊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사교육비 절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교육 현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이 담겨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교육 왕국'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2009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21조6천억원. 지난해 서울시 총예산(21조4백69억원)을 뛰어넘는다. 2001년(10조7천억원)에 견주어 2배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학생 1명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2천원.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초등학생이 평균 8.6시간으로, 고등학생(4.3시간)의 2배나 되는 시간을 학원이나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 사교육에 바쳤다.

사교육비 줄이기 프로젝트 가동… 지난해 첫 감소세

이러한 한국의 교육열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주 언급해 화제다. 지난해 3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어린이들은 매년 한국의 어린이들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개월이나 적다"고 아쉬워했다.

지난해 말에도 "미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한국처럼) 학교와 학부모들이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에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나눈 대화를 인용해 "그들(한국 부모)은 자녀들이 수학, 과학, 외국어 등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잘하기를 원한다"며 "다른 나라보다 교육을 더 잘 시키는 나라가 미래에 이길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들이 탁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을 칭찬 일변도로 인용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실제로 한국의 남다른 교육열은 국가 경제성장에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22일 라디오 연설에서 "자본도 자원도 경험도 없었던 우리가 짧은 기간에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 크다.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길에도 교육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교육 열풍은 경제성장을 이뤄낸 이후에도 식을 줄 모른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한국은 경제개발 초기는 물론 지금도 고등교육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다. 산업화 시대의 '우골탑'과 세계화 시대 '기러기 가족'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유별난 교육열은 한국경제가 성장하는 중심축 가운데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고 지금도 과열돼 있는 교육열을 하루아침에 식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2009년 사교육 의식조사'는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로 '기업체 채용 시 출신대학 중시'를 꼽았다. 대다수 국민들은 자녀가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야 더 높은 사회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사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액이 훨씬 많다.

2009년 소득별 사교육비 지출 현황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7백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과 1백만원 미만 저소득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무려 8.4배로 벌어져 있다. 고소득 가정에서는 학생 1인당 월 51만4천원, 저소득 가정에서는 6만1천원을 지출했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성적순으로 분포돼 성적이 좋을수록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적이 상위 10퍼센트에 드는 학생의 경우 하위 20퍼센트 이내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를 2.3배 더 지출했다.

정부가 지난 2년간 교육복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도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교육복지는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 취약계층 학생들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학원에 가는 대신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보충수업을 해주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 3년 내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사교육 없는 학교' 선정, 영어교육 기회가 적은 농산어촌학교 대상 영어 원어민 교사 파견, EBS 방송강의 강화 등이 그런 사례다.


국립국제교육원

지난 2월 도서벽지와 소외계층 아이들이 참여한 무료 영어캠프.

> "정부가 교육복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방과후 학교 활성화, '사교육 없는 학교' 선정, 농산어촌학교 영어 원어민 교사 파견, EBS 방송강의 강화 등이 그런 사례다."

이들 사교육 수요 대체 정책의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학생은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3만원 적게 지출했다. 또 '스타 강사' 확보 등에 주력한 EBS의 수능강의를 들은 고등학생은 사교육비를 연간 19만5천원 절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009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미미하나마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0.25퍼센트 포인트 감소해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2001년 이래 최초로 감소세를 보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사교육 억제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사교육 없이도 대학 갈 수 있는 환경 꼭 만들 것"

정부는 경쟁력 있는 고품질 공교육을 위해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정책도 적극 추진해왔다. 2008년부터 농산어촌 기숙형 고교, 자율형 사립고·공립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학교 4백 개교를 지정해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했다. 점수 위주의 선발에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시전형 제도도 정착되고 있다. 2009년부터 도입한 대학 입학사정관제, 올 연말 외국어고와 국제고에서 처음으로 시행할 자기주도학습전형 등이 그것이다.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2일 라디오 연설에서 "매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어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3월부터 1년간 열릴 교육개혁대책회의는 교육 현장을 돌면서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교육민생 분야를 주제로 대입제도 선진화, 학교 다양화, 교원제도 혁신, 대학교육 강화, 교육과정 및 교수법 혁신 등을 우선 다루게 된다.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고려해 국격(國格) 향상과 관련한 교육 과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첫 회의는 3월 2일 대학입시 개혁을 위한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를 주제로 열렸고 4월부터는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 열린다. G

글 · 최은숙 기자

신나는 학교… 살아나는 공교육

사교육비 걱정 없이 방과후 교실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학교, 파격적인 특기·적성 수업으로 원하는 게 뭔지 발견하게 해주는 학교, 도시 학교와 다를 바 없이 원어민 선생님에게 영어를 배우는 시골 학교….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공교육 개혁이 학교를 바꿔놓고 있다.

#1 경기 남양주시 와부고등학교에 견학 온 외부 손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연신 질문을 쏟아낸다. 2008년 개교해 아직 1회 졸업생조차 배출하지 않은 이 학교에는 교육연수평가단, 중등교장 연수단, 학부모들은 물론 기자들까지 주 1, 2회 손님들이 다녀간다. 와부고의 '교육 실험'에 대한 뜨거운 관심 때문이다.

와부고가 이처럼 단기간에 '열린 공교육의 미래 모델'로까지 칭송받게 된 데는 이 학교 김학일(49) 초대 교장의 과감한 공교육 실험이 큰 기여를 했다.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와부고는 말 그대로 정부 핵심 교육정책의 하나인 '자율'을 마음껏 실험하고 있다.

김 교장은 개교 당시부터 1백 퍼센트 초빙교사제에 의거해 고등학교 3학년 진학지도 경력이 우수한 교사를 위주로 선발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교과별, 수준별 심화 프로그램, 유명 학원의 온라인 학습, 그룹별 대학생 멘터링, 주말 집중반 등)을 운영하고 수준별 3단계 맞춤형 수업을 도입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들도 독특하다. 아침에는 뇌호흡, 필독서 함께 읽기, 잉글리시 카페 시청 등과 함께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한다. 텃밭을 가꿔 거둔 채소를 곁들여 '삼겹살 데이'를 갖는가 하면 3년간 정규 수업시간에 검도를 가르친다. 매주 수요일 저녁식사 후에는 전교생이 2시간 동안 특기·적성 활동에 참여한다. 오케스트라, 마술, 사진, 풍물, 클래식 기타 등을 배우면서 숨은 적성을 찾아내는 시간이다.

교육 실험은 성공적이다. 첫해 정원에 미달했던 와부고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2.3 대 1·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생이면 입학 자격이 있는데 선발 조건은 성적순이다. 입학 성적도 쑥 올랐다. 200점 만점에 2008년 161.10점이던 커트라인이 2010년에는 189.14점으로 치솟았다. 와부고에 들어오고 싶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한 경우도 있을 정도.

와부고는 2008년 경기도 교육만족도 1위,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제1회 방과후 학교 교육대상' 장려상에 이어 '제1회 2009 공교육 성공 사례 수기 공모' 대상 수상 등 외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자율' 실험은 계속된다. 올해는 1학년부터 전면 교과교실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토플 국제반 운영, 학생 자치제, 무학년제, 계절학기 등 파격적인 시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2 충북 청주시 세광고에는 '천하대 특별반'이 있다? 야구 명문고로 알려졌을 뿐 공부 잘하는 학교와는 거리가 멀었던 세광고가 2000년 이후 입시 명문고로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은 바로 천하대 특별반과 비슷한 '한빛학사반' 덕분이다.

한빛학사반은 1, 2학년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전국 단위 모의고사 등 각종 선발고사를 거쳐 각 학년 성적 상위 학생을 40명씩 뽑아 구성하며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한다. 또 각 학년 차상위 성적 학생 30명이 모인 심화반에도 언어, 수학, 영어, 구술면접, 통합논술 등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논술을 제외한 주요 과목에서 세광고 선생님들이 야간 수업을 도맡고 있다. 또 세광고 출신 대학 선배 멘터들이 필요할 때마다 학생들과 일대일로 만나 '오답노트'를 건네며 맹점을 보완해주는 등 막강한 학습 도우미로 활약하고 있다.

세광고의 변화는 2000년 초부터 시작됐다. 세광고 출신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 "후배들을 제대로 키워보자"며 방과후 빈 교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2000년에 25명의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 5년간 대전·충남북지역 고등학교 가운데 서울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가 됐다. 올해 입시 결과는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2월 말 현재까지 서울대에 11명, 연세대와 고려대에 각각 30여 명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공부의 신>에서 특별반의 면학 열기가 다른 반에도 영향을 끼쳐 수능 성적이 올랐다는 설정이 세광고에서도 통할까. 수학 담당 조주현 교사는 "한빛학사반이나 심화반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등 학교 전체의 면학 열기가 높다"고 말한다. 지난해 세광고 졸업생 3백50명 중 약 74퍼센트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해 전국 고교 평균 4년제 대학 진학률 50.5퍼센트를 크게 웃돌았다.


동아DB

방과 후에 선생님과 함께 그룹스터디를 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 세광고 학생들.



자율형 공립고인 경기 남양주시 와부고 학생들은 고품격 공교육 덕분에 사교육비 걱정이 없다. 사진은 2월 봄방학 중 자기주도학습을 하고 있는 와부고 학생들.

비용은 낮게 만족도는 높게 |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는 참여 학교와 학생 수, 프로그램 다양화 면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에만 전국 초중고교 중 99.9퍼센트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했다. 전국에서 4개교를 제외한 1만1천1백60개교가 참여한 것이다. 전체 초중고생(7백42만7천2백45명)의 절반이 넘는 57.6퍼센트가 참여해 2008년 대비 3.3퍼센트가 증가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수도 28만9천7백48개로 2008년 대비 24.2퍼센트가 늘면서 교과과목은 물론 특기·적성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충남고(대전시 탄방동)는 독특한 방과후 동아리 활동과 명예교사제 등에 힘입어 상위권 대학에 높은 진학률을 올리고 있는 경우다. 1, 2학년 학생의 90퍼센트가 교과과목 동아리, 철학동아리, 만화동아리 등 42개 동아리에서 활동한다. 또 카이스트 학생 명예교사 초빙, 인근 고교와 공동 논술수업 등을 도입하면서 학원 수강 비율이 줄었다는 게 학교 측 평가다.

방과후 학교 성공의 가늠자인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어떨까.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높은 편이다. 지난해 말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2백 개교와 학생 3천명을 조사해 발표한 '2009년 방과후 학교 성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62퍼센트, 학생의 59.1퍼센트가 사교육비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지난해 방과후 학교의 한 달 수강료로 학생 1인이 낸 학비는 사교육비 수준보다 저렴한 한 달 평균 2만9천3백47원이다. 저소득 가정의 학생 39만명에게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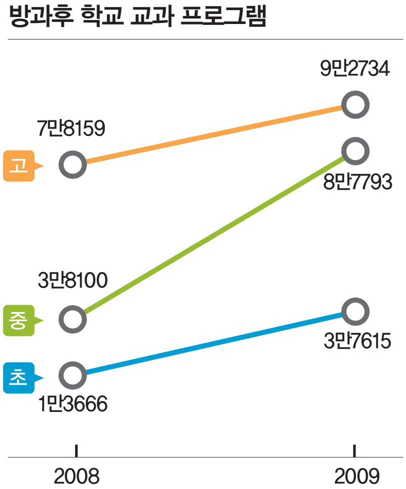
방과후 학교와 연계한 대학생 멘터링(Mentoring · 경험 많은 선배가 도움을 주는 것)의 지원도 든든하다. 대학생 멘터링은 소외계층 초중고생들(멘티)을 대학생들(멘터)과 연계해 학습과 인성 지도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2009년에 대학생 멘터링 제도에 참여한 대학생은 3만3천5백16명, 이들의 도움을 받은 초중고생 멘티는 4만6천1백38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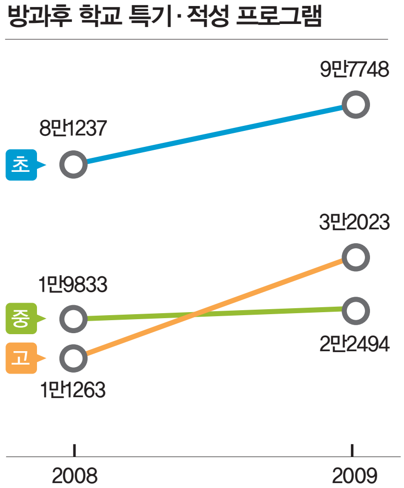
정부는 방과후 학교가 학업 성취도 향상, 사교육비 절감뿐 아니라 강사 일자리 창출,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고 평가해 2010년에 확대 운영한다. 또한 '엄마품 멘터링'과 '학부모 코디네이터' 등 학부모 참여를 늘리고, 초등돌봄교실을 올해 2천 개 더 늘려 전국 초등학교에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펴낸 공교육 성공 사례집. 다양한 공교육 실험 모델이 담겨 있다.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단위 · 개

교과종합반 운영, 수준별 맞춤 | 사교육 없는 학교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일중학교. 봄방학 기간인데도 10개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다. 학기 중에 운영하는 교과 종합반 '두드림 아카데미'가 방학 중에도 운영되기 때문이다.

방학 중에는 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근처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들에게는 중학교 과정, 중학교를 졸업한 예비 고1에게는 고교 과정을 미리 가르쳐준다.

방학 내내 '고교 예비 맛보기반'에 다녔다는 강준한(16) 군은 "다른 고교에 입학하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지역 특성상 맞벌이가 많은 이 지역에서 전일중이 운영하는 두드림 아카데미는 지역사회복지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전일중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사교육 없는 학교'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곳은 정부에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아 3년간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또 사교육 수요를 학교 교육으로 흡수해 학교 교육 만족도를 80퍼센트 이상으로 높여야 하는 등 목표치가 꽤 까다롭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전일중에서는 학기 중에 수준별 5개 반을 편성해 매주 3회 오후 5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교과종합반을 운영했다. 지난해 1학기 교과종합반 참여율은 전체 학생의 20퍼센트였으나 수준별 수업을 세분화한 2학기부터는 참여율이 30퍼센트로 올랐다.

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대책팀 조선진 연구사는 "2009년 6월 조사 당시 전일중학교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30만6천4백원,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80.9퍼센트였는데, 시행 첫해부터 사교육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시행 다섯 달 만에 사교육비가 25.8퍼센트 줄고, 사교육 참여율도 12.2퍼센트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곳은 모두 4백57개교. 공모에 참여한 9백87개교 중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초등학교 1백60개교, 중학교 1백42개교, 고등학교 1백55개교가 선정됐다. 정부는 사교육 성행 지역의 학교는 물론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학교 중 공교육 내실화에 힘쓰는 학교 등을 고루 뽑아 프로그램 개설, 교육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학력 편차를 줄이고 정규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경기 분당 샛별중학교의 경우 교과교실제를 운영해 수준별 맞춤수업을 실현했고, 대전 중일고의 경우 모든 교사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높이기도 했다. 정부는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력해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책을 찾을 계획이다.

농산어촌에도 원어민 교사 파견 | 영어교육 강화

"내가 사는 시골에는 영어학원이 없다. 도시에 있는 영어학원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참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반에는 영어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 반 아이들에게 영어가 재미있고 자신 있는 과목이 된 것은 TaLK 선생님들 덕분이다. 교포 선생님과는 〈흑부리영감〉이란 영어연극을 공연했고, 미국에서 오신 바너비 선생님께는 비보이 댄스를 배우면서 영어와 친한 친구가 됐다."

전북 군산 발산초등학교에 다니는 최청심(11) 군의 학교 영어공부 경험담이다. 이 학교 전교생 83명은 TaLK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2회 원어민 선생님이나 교포 대학생에게 영어를 배우고 있다. TaLK는 '정부 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Teach





국립국제교육원

방과후 학교는 지역사회 아이들의 공부방이자 놀이터다. 서울 전일중의 방학 중 '예비 맛보기반' 선생님과 아이들(위).
영어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산어촌에는 원어민 교사들이 파견돼 있다. 2월 중순 열린 글로벌 빌리지 무료 영어캠프(아래).

"지난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곳은 모두 4백57개교. 정부는 사교육 성행지역의 학교는 물론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학교 중 공교육 내실화에 힘쓰는 학교 등을 골고루 뽑아 프로그램 개설, 교육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다."

and Learn in Korea) 사업'의 약자.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어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산어촌에 영어봉사 장학생(재외동포 장학생 또는 원어민 대학생)을 파견하는 제도다.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TaLK 사업은 2월 현재 5백40여 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3월부터는 6백5개교로 확대된다. 4주간 사전 연수를 받고 3월부터 투입될 4기 봉사 장학생 3백명의 경우 재일동포 1.5세나 2세가 1백74명, 원어민 1백26명이다.

대학 때 한국을 6개월간 여행하는 등 한국 사랑이 각별한 루카스 그린(24 · 캐나다 피겨 행정요원) 씨는 외국인으로서 한국문화를 좀 더 알고 싶어 4기에 지원한 경우다.

국립국제교육원 TaLK팀 정동수 홍보팀장은 "TaLK가 소외지역의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한국 사랑을 퍼뜨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과 올 연초 3주에 걸쳐 실시한 'TaLK 만족도 조사'에서는 대상 학생들의 71퍼센트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덕분에 영어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67퍼센트에 달했다. 수업을 진행한 원어민 장학생의 경우 압도적인 93퍼센트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TaLK는 현 정부 출범 당시부터 중점을 둔 실용 영어교육 정책이 실현된 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기본 생활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학교 중심 실용영어교육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2008년부터 초등학교 영어수업 강화, 영어 전문교사 인증제 등을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 5천명을 배치하는 등 생활영어 중심 교육을 더 강화한다. 더불어 초등학교 3, 4학년의 영어 수업시간을 주당 한 시간씩 더 늘리고, 중학교의 경우 주당 한 시간 이상 영어회화 수업 및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G

글 · 최은숙 기자 / 사진 · 정경택, 조영철 기자

입학사정관제는 내신·수능 성적순이

변화를 거듭하는 대학입시 전형은 대학마다 이름도 내용도 다양하지만, 이들을 아우르는 핵심 요소는 입학사정관제다. 입학사정관제는 수능 점수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었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학생을 선발한다. 따라서 스스로 진로를 계획하고 목표에 맞는 교과·비교과 활동을 충실하게 한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

#1 올해 연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박혜민(19) 양은 지원자의 성장잠재력과 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인 '진리·자유전형'으로 합격했다. 진리·자유전형은 1단계에서 생활기록부와 내신 성적만으로 모집 인원의 2배수를 서류평가 대상자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서류평가만으로 모집 인원의 50퍼센트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를 면접구술시험 대상자로 선발한다. 3단계에서는 서류평가와 면접구술시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순으로 우선선발 모집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선발한다. 합격자에게는 수능 3개 영역에서 2등급 이상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박 양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 학원수업 한번 들은 적 없이 혼자 공부했다. 박 양은 "그저 학교수업에 충실했고, 교내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를 자기소개서에 담아냈다"고 말했다. 박 양은 학교 성적도 1.2등급으로 뛰어났지만 입학사정관들의 눈길을 끈 것은 역경을 극복하고 리더십을 기른 과정이었다.

박 양은 보통 사람보다 청력이 좋지 않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귀머거리'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난청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은 영어 듣기였다. 무의식적으로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듣기만 하는 게 어려웠다.

"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또 들었습니다. 반도 못 맞히던 제가 한두 개만 틀리는 실력으로 발전하면서 노력하면 못 할 게 없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 무슨 일이든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내는 자세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게 됐습니다."

박 양은 경기 파주시의 봉일천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자 1회 학생회장이다. 전통도 선배도 없는 신설학교 학생회장으로서 박 양은 학교 방침과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해 교칙을 만들고 학교를 가꾸는 데 앞장섰다. 또 장애인복지기관에서의 정기적인 봉사활동, '파주시 차세대 위원' 활동, EBS '장학퀴즈' 출연, 경기도 주최 학교 논술대회 최우수상 및 은상 수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갔다. 입학사정관들은 박 양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문제 해결력,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설득하는 리더십 등을 높이 평가했고, 박 양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조영철 기자

입학사정관전형에서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

#2 올해 포스텍(옛 포항공대) 수학과에 입학한 박재용(19) 군은 고등학교 3년 평균 내신 성적이 상위 23퍼센트 수준이고 경시대회 입상 경력도 없었다. 점수와 경시대회 수상을 중시하는 포스텍의 이전 전형대로라면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을 터. 하지만 올해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한 포스텍은 박 군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합격시켰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갑자기 가정환경이 어려워진 탓에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친구들과 비보이 춤을 추러 다니던 박 군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은 상위 45.7퍼센트로 포스텍에 입학이 불가능한 성적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헌신과 선생님의 노력으로 마음을 잡은 박 군은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휴대전화도 없앴을 만큼 지독하게 공부에 매달린 끝에 3학년 1학기 성적을 상위 4.7퍼센트로 끌어올렸다.

입학사정관들은 박 군이 학원 수강이나 과외 등을 할 형편이 아닌 상황에서 학교 수업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적을 끌어올린 점, 경시대회 수상 경력은 없지만 교내 학력우수상을 다수 수상하는 등 학교생활에 충실했던 점을 높이 평가했다.

서류와 면접 심사로 이뤄진 이번 입학전형에서 포스텍 입학사정관들은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성장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태도와 가정형편, 고교 사정 등을 담은 교사들의 추천서도 살폈다. 성적보다 성장 가능성을 중시하고, 비교과 영역에서 사교육기관에 의한 봉사나 해외봉사를 배제하고 학교생활 중심으로 평가한 포스텍은 입학사정관제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아닙니다

2011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는 전체 정원의 60.9퍼센트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또 수시모집 정원의 51.6퍼센트는 대학의 교육 목적에 따라 다양한 소질이나 적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이다. 학생부, 서류평가, 논술, 면접 등 다양한 선발방식을 적용하는 특별전형의 핵심은 입학사정관제다.

입학사정관제는 성적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입학 방식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대학이 내신 성적과 수능 점수 위주가 아니라 창의력, 리더십, 봉사정신 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면 고등학교도 학생의 가능성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하게 될 것이고,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유발요인도 차단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별로 학생부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추천서, 논술, 면접 등 전형요소를 다양하게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생활 충실도, 인성, 장래에 대한 계획,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학들도 설립 이념이나 인재상,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인재를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창의성·인성 조화된 교육 위한 핵심 제도

입학사정관제는 2009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처음 선보인 후 시행 대학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9학년도에 40개 대학에서 4천4백76명을 뽑았고, 2010학년도에는 90개 대학에서 2만4천2백40명을 선발했다. 올해 고3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1학년도에는 1백7개 학교에서 3만8천7백48명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리더십 전형' '과학인재 전형' '학생부 우수자 전형' '특기자 전형' '사회봉사 전형' '자기 추천자 전형' 등 대학마다 이름도 내용도 다채롭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려면 먼저 원하는 전공과 대학을 결정한 후 그 대학이 어떤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 스스로 진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 눈여겨본다. 그러므로 진로를 차분히 생각하고 계획을 세

입학사정관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입학사정관제는 1923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시작돼 점차 확산됐다. 미국의 명문 대학들은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지도자가 될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입학사정관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검증됐기 때문이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등 미국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분류되는 사립대학들의 입학 전형 요소는 SAT점수, 고등학교 내신 성적, 교내외 활동기록, 교사추천서, 면접, 에세이 등이다. 우수한 성적은 기본사항이며 재능과 강한 정신력, 봉사정신, 리더십 등이 입학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입학사정관들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버드대는 입학사정관 2명이 전형 자료를 종합 평가한 후 한 장으로 요약한다. 학점, 과외활동, 인성(추천서, 에세이, 면접) 등을 종합한 총괄 평가 등급이 최종 기준이 되며, 35명의 입학사정위원 대다수가 찬성할 때 합격이 결정된다.

UC버클리대도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 두 명의 입학사정관이 서류를 심사한다. 학업능력, 리더십, 봉사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5단계로 평가한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에 2점 이상 차이가 나면 제3의 입학사정관이 다시 심사한다. 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입학사정관의 채점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다른 입학사정관의 채점 결과와 차이가 많이 나는 입학사정관은 다음 해 입학사정관 임명에서 배제한다.

일본도 입학사정관제와 유사한 AO(Admissions Office)제를 도입하고 있다. AO제는 학력, 적성, 학습의욕, 목적의식,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선발 방식이다. 1990년 처음으로 AO제를 도입한 게이오대학의 경우 지원서, 입학 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기록한 지망 이유서, 중학교 졸업 이후 활동과 성과를 기재한 활동보고서 등을 평가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보고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일본은 전체 7백22개 대학의 72퍼센트인 5백20개 대학이 입학 전형에 AO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AO제로 선발하는 학생은 전체 입학 정원의 8퍼센트에 불과하고, 하위 사립대학들의 경우 학력평가 없이 정원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입학사정관제 정착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아DB

하버드대는 학점, 과외활동, 인성 등을 종합 평가해 입학사정위원 대다수가 찬성할 때 합격시킨다.

우는 게 첫 번째로 할 일이다. 또 입학사정관들은 장래 목표와 관련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충실히 한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준다. 따라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학교생활만 충실하게 해도 학업은 물론이고 리더십, 봉사활동, 동아리, 체험활동 등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교과와 비교과 활동 가운데 적성과 관심에 맞는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말이나 방학을 활용해 경험의 깊이를 더한다.

이런 모든 활동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입학사정관은 기록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평소 수행한 각종 활동을 그때그때 정리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류평가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다. 자신의 특성과 학과에 대한 열정이 잘 드러나도록 진솔하게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 학생을 여러 명의 입학사정관이 다단계 전형을 통해 평가하므로 하루 동안 치른 시험 결과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것보다 훨씬 공정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충분한 입학사정관의 확보와 전문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학부모는 평소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녀가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지만 입학사정관제에서는 학원에 보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잠재력을 기르는 일은 학원에서 하기 어렵고, 학생의 특성과 개성을 고려하지 않은 ‘스펙’ 쌓기 위주의 사교육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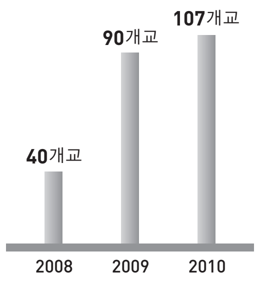
자기주도적 학습자를 선발하는 카이스트와 숙명여대는 사교육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선발 기준도 학생부, 교사추천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서강대와 연세대는 해외봉사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며, 부산대는 학생의 독서 이력에 가산점을 준다. 또 포스텍의 경우에는 성적보다 잠재력에 더 큰 점수를 주어 최종합격자의 10퍼센트를 잠재력 요소에 의해 선발했고, 건국대는 자기 추천,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생을 선발한다.

정부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공교육 내에서 할 수 있는 학습 및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을 평가할 때 입학사정관 전형에 사교육 유발요소가 없는지 살핀다. 토익, 토플, 텝스 등 어학시험 성적 반영, 수학과 물리 등 교과 관련 올림피아드 입상 성적 요구, 해외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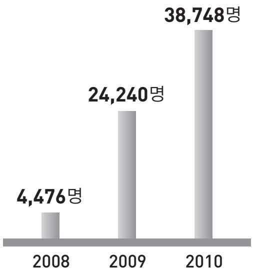


연합

입학사정관들은 외형적인 실적보다 내면에 잠재한 열정과 노력을 더 높이 평가한다. 학교생활에서 관심과 적성이 맞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체험 과정에서 느낀 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다.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 수



입학사정관제 선발 규모

등 사교육기관 의존 가능성이 높은 체험활동 반영,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를 영어로 기술하게 하는 경우 등 사교육 유발 가능 요소를 배제하도록 명시한다.

또한 대학 및 고등학교가 입학사정관 전형의 운영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공통 운영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입학사정관 전형 방식은 대학마다 달라서 학생과 교사들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교육시장에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대필 사례도 발생하는 등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봉사·어학시험 등 사교육 유발 요소 배제

2월 18일 전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주최로 열린 '입학사정관제 운용의 실체' 심포지엄에서 한림대 이교혁 입학사정관은 공통추천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사정관은 "입학사정관제를 시행 중인 전국 47개 대학의 추천서 질문에 나타난 전형 요소를 분석한 결과 지도력(리더십)을 묻는 질문이 42.6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봉사성 관련 질문이 34퍼센트, 창의력을 묻는 질문이 27.7퍼센트였다"며 "이를 반영해 공통 양식을 만들면 입학사정관제를 처음 시행하는 대학도 쉽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제는 한 학생을 여러 명의 입학사정관이 다단계 전형을 통해 평가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치른 시험 결과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것보다 훨씬 공정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입학사정관의 확보와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임 입학사정관 수는 2009학년도 전형 시 42명에 불과했으나 2010학년도에 2백18명으로 크게 늘었고, 2011학년도에도 3백46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매월 2, 3일씩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5개 대학을 선정해 3백90명의 입학사정관을 양성하고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사정관제 uao.kcue.or.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진학정보센터 univ.kcue.or.kr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열정 쏟은 학생에게 높은 점수"

임진택 전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



입학사정관제 정착과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국의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모였다. 전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는 2월 18일 경희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경희대 임진택(41) 입학사정관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회장은 "입학사정관 제도의 정착 여부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에 달렸다"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 전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는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전국 68개 대학 2백20명의 입학사정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회원들의 정보 교류와 교육훈련을 위해 연 2회의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학이 처한 상황과 관심사에 따라 소규모 기획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또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의 공통 양식 개발, 입학사정관제 안내서 발간 등을 통해 수험생과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펴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제 시행 2년을 평가한다면.

입학사정관제는 수험생 개개인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의 입시로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던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대학으로 하여금 학교 인재상을 고민하게 하고 '입학생 사후관리' 등 대학 간 교육 경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또 고등학교는 특성화된 지도를 하고 학생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학의 고교정보 수집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고교 교육도 교과과정에만 집중되어 있어 학생의 잠재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제가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을 만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에서는 학원에서 이야기하는 '합격 비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기존 입시에서는 '몇점이면 합격이야' 라고 컨설팅할 수 있겠지만, 입학사정관제에서는 대학마다 또는 학과마다 인재상이 다른 데다 학원에서 만든 정형화된 틀로는 입학사정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제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입학사정관제는 입학사정관이 운영하는 입시제도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은 외형적인 실적보다 그 내면에 잠재한 열정과 노력에 감동합니다. 평소 체험 과정 속에 느낀 점을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고민을 상담하고 추천서를 작성해 줄 멘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학사정관제에서는 교외 실적보다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쏟은 학생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준다는 점을 기억하면 성공할 것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도 골라서 간다

다양성·잠재력 일깨우는 공교육의 즐거운 변화

성적과 주입식 학습에만 치중하던 공교육의 무게중심이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학생들이 지닌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성과 특기를 존중하는 '참교육의 장'을 지향하는 학교들이 마이스터고, 과학중점학교, 자율형고교 등 새 명찰을 달았다.



마이스터고 우수 사례로 꼽히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술 명장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한민국 1% 기술 명장 길러낸다 | 마이스터고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한 김예결(16) 군은 최근 마이스터고 입시에서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 지원해 차석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중학교 내신 석차가 상위 3퍼센트 안에 드는 김 군의 성적이면 과학고나 외고 등 특목고 진학을 꿈꿀 만도 했다. 하지만 김 군은 무작정 대학에 진학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고 보고 자신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마이스터고 진학을 결심했다.

"마이스터고에서는 기술 명장(明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하므로 원하는 공부를 하면서도 대학 입시에 매달리는 학생들에 비해 심리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거든요."

김 군처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마이스터고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마이스터(Meister)는 독일어로 명장, 장인이라는 뜻으로, 마이스터고는 미래의 마이스터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기술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체, 지자체, 학교 등이 서로 도와 예비 마이스터를 육성하는 전문계고의 선도 모델.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학교당 35.4개의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채용 지원, 산학 연계교육 등 다양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마이스터고의 강점은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기술 교육과 인턴십, 해외연수 등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국가 지원으로 학비가 면제될 뿐 아니라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점

도 커다란 매력으로 꼽힌다. 취업 후에도 회사와 연계된 대학에 특별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군 입대도 4년간 연기할 수 있다.

2008년에 9개교, 지난해 12개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됐다. 이들 21개교는 올해 정식으로 문을 연다. 이들 학교의 2010학년도 모집 정원은 총 3천6백명이지만 많은 지원자가 몰려 평균 3.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마이스터고의 신입생 선발 기준은 교과 성적과 인성, 면접 등 3가지. 이 중에서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은 일반전형 30퍼센트 이하, 특별전형 50퍼센트 이하로 줄고 대신 인성과 면접 비율이 강화됐다. 또한 마이스터고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 특별전형 대상을 확대해 다른 전문계 고교보다 우선 선발의 기회를 준다.

정경택 기자

교육 낙후지역에 우수 교육환경 조성 | 기숙형고교

중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지방 학생들이 대도시의 기존 명문학교가 아닌 지역의 기숙형고교로 몰리고 있다. 충북 옥천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 10퍼센트인 신입생의 비율이 2008년 18퍼센트에서 지난해 29퍼센트로 증가했으며, 강원 홍천고등학교는 2008년 15퍼센트에서 지난해 28퍼센트로 늘었다. 도서지역에 자리한 전남 신안군 도초고등학교도 2008년 기숙형고교로 지정된 후 1년 만에 학생 수가 26퍼센트 급증했다. 매년 신입생 수가 정원에서 20퍼센트가량 모자랐던 인천 강화군의 삼량고등학교도 지난해 기숙형고교로 지정된 덕에 올해는 정원을 채우는 기쁨을 맛봤다.

농산어촌은 도시에 비해 여러모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이 때문에 도시와 학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학생들은 불안감을, 부모는 미안함을 안고 살아간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 도입된 것이 기숙형고교다. 기숙형고교는 교육 낙후지역의 학생들이 도시로 가지 않아도 좋은 환경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완비했다.

올해는 2008년에 기숙형고교로 지정된 82개교가 운영을 시작해 1만4천여 명의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된다. 내년부터 운영되는 68개교에 기숙사가 완공되면 8천여 명의 낙후지역 학생이 추가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다. 기숙사에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 개인공간은 물론 휴게실과 냉난방 시설도 갖췄기 때문에 통학불편 해소를 넘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우수한 교사들이 직접 이끄는 방과후·주말·방학중 프로그램과 기숙사 연계 프로그램 등은 학생들의 학업 향상과 인성 함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숙사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월평균 10만원대로 정해졌다.

학생 모집은 학교별로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로 한다. 그러나



동아DB



조영철 기자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된 강원 원주고에서 과학수업이 한창이다(위). 아래는 과학중점학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에 참여한 신도림고 선생님들.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학교라도 기숙형학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학생을 먼저 배려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일정 비율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첨단기술의 만남 | 농산어촌 전원학교

충남 아산시 거산초등학교는 공공기관,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조성해 텃밭 가꾸기, 꿀벌 기르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독서와 글쓰기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 결과 2001년 34명에 불과하던 재학생이 지난해에는 1백21명으로 늘었다.

강원 평창군 면온초등학교는 민족사관고 재학생, 인근 스키장 직원, 작가 등 지역사회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민간 지원으로 마련한 학교 내 숲속 오두막집, 야외 방갈로, 작은 도서관은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덕분에 이 학교의 학생 수는 2003년 21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농산어촌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학생 및 학교 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전원학교'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전원학교는 농산어촌의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e러닝 첨단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영어 등 우수 공교육



동아DB

서울 양천구 한가람고는 2007년부터 1교사 1교과교실제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여왔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율학교다.

지난해 초등학교 77개교, 중학교 33개교 등 총 1백10개교를 전원학교로 선정한 정부는 첨단시설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총 1천3백9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 학교는 모두 올해부터 e러닝 교실을 구축하고 이러한 첨단시설과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양질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원학교의 수업은 일반학교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첨단 e러닝 교실에서 교과서 없이 수업을 한다. 이곳에서는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칠판과 노트북을 이용한 수업이 이뤄진다. 교실 밖 체험활동에서도 무선 인터넷과 개인 컴퓨터가 교육도구로 이용된다.

수준별 맞춤 수업으로 행복한 배움터 | 교과교실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변화는 교과교실제 운영이다. 교과교실제는 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갖추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선택해 찾아가 듣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학습 능력을 반영한 수준별 맞춤형 수업이 활성화되면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학교도 갑갑하고 획일화된 교육의 장이 아니라 공부의 재미를 찾아주는 행복한 배움터로 질적 성장을 꾀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언북중학교가 그런 예다. 언북중은 모든 교과로 교과교실제를 확대하면서 각 교과에 맞춰 교실별로 시청각 시설을 구비했다. 특히 영어, 수학 같은 주요 과목은 '2학급 3교실제'로 운영했다. 총 66명의 학생이 3개 교실로 나눠 이동하면서 수준별 학습을 받도록 한 것. 이후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는 크게 향상됐다. 교사들도 각자 맡은 교과교실을 학습자료 연구실로 활용하며 교재와 교수법 연구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한가람고는 2007년부터 1교사 1교과교실제를 운영해온 선도적 모델. 한가람고는 학생의 선택과목을 최대한 반영해 2008년 2학년을 대상으로 98가지, 3학년을 대상으로는 78가지의 교과를 교과교실제로 운영했다.

교과교실제는 지난해 총 6백47개교에 도입됐다. 정부는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에 교과교실제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2012년 문을 여는 학교는 모두 이를 실시하게 할 방침이다.

교과교실제를 시행해도 학급별로 담임교사가 배정되기는 마찬가지. 조회, 종례, 생활지도 같은 학급활동은 담임의 교과교실에서 이뤄진다. 각 교과교실에는 교사가 상주하고 있어 학생들과의 교류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 생활지도도 쉬워진다. 학생들이 잦은 이동으로 피곤할 것이란 우려는 접어도 된다. 기존 교실의 재배치, 교과 집중이수제, 블록타임제 등을 실시해 학생들의 이동 횟수를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준비된 이공계 우수 인재 만들기 | 과학중점학교

일반계 고교에서 이공계 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입학 전에 기초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탓에 전공 수학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학과 수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과학중점학교에서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과학중점학교는 과학과 수학, 심화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다양한 교양과목과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과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에는 53곳의 일반계 고교가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됐으며 올해는 이 중 51개교가 운영을 시작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1백 개교를 과학중점학교로 지정 운영해 과학영재학교, 과학고와 더불어 연간 1만여 명의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한 앞으로 예술, 체육 분야의 중점학교도 운영해 학생들이 일반계 학교에서도 심도 있는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된 일반계 고교는 최소 4개의 과학교실과 2개의 수학교실을 갖추고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을 진행한다. 이곳에서는 과학중점과정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도 과학적 소양을 쌓을 기회가 많아 융합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

신입생을 뽑는 기준은 시도교육청이 정한 일반계 고교의 선발 방식을 따른다. 평준화 지역인 경우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하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내신 성적, 고입 선발고사 점수 등 교육감이 승인한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과학중점과정을 이수하면 대학 입학에도 유리하게 작용할까. 물론이다. 이공계 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이 고교 시절 과학이나 수학 교육을 충실히 받고 다양한 과학 체험활동을 경험한 사실은 대학 측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창의적 글로벌 인재 육성 첫 단추 | 자율형고교

글로벌 시대에는 단순히 지식이 많은 것보다는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에서는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을 자율화한 차터스쿨(Charter School), 특성화학교(Special School) 등의 제도를 도입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대학입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해법으로 도입된 모델이 자율형고교다.

정부는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 25곳, 자율형 공립고 12곳을 선정했다. 올해 3월 문 여는 자율형 공립고는 이들을 포함해 총 21곳. 지난 2월 자율형 공립고로 추가 지정된 23곳은 내년 3월에 개교한다. 자율형고교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 **교과교실제를 시행해도 학급별로 담임교사가 배정되기는 마찬가지다. 조회, 종례, 생활지도 같은 학급활동은 담임의 교과교실에서 이뤄진다. 각 교과교실에는 교사가 상주해 학생들과의 교류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 생활지도도 쉬워진다.**

서울 신일고는 예술과 체육 교육을 강화하고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제2 외국어의 원어민 강사 교육을 의무화한다. 경기 남양주시 와부고는 아침 독서시간과 대학생 멘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외부강사를 활용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한다. 또 충북 청원군 청원고는 영어와 수학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강화하고 인성교육 차원에서 학년별 국토순례 체험행진을 추진키로 했다.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로 나뉘는 자율형고교는 이처럼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가장 큰 특징. 꼭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어 학교별로 특성화교육과 한층 강화된 인성교육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는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자율형 사립고는 사립학교 본연의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능력에 따른 무학년제 수업,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과 평가의 기회를 주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다.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50퍼센트 이상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에 따른 사교육비 유발을 막기 위해 광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평준화 지역 학생을 선발할 때는 내신 성적 일정 비율 내에서 추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뒀다. 또한 정원의 20퍼센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했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비가 일반 공립고에 비해 3배 정도 비싼 게 흠.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교육 외적 요건으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는 5년 단위로 지정된다. 또 5년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울산 현대청운고, 서울 하나고 등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도 올해 2월 시범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로 명칭이 바뀐다.

자율형 공립고는 자율형 사립고처럼 학교 운영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특성화, 다양화해 전인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공립고다. 정부는 일반계 공립고 가운데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와 새로 생긴 학교, 교육혁신 의지가 강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의 국민공통기본 교과는 연간 수업시수의 35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선택중심 교과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학생 모집은 광역 단위로, 평준화 지역 학생 선발은 내신 성적의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학생이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등록금은 일반고와 비슷한 연간 1백10만~1백50만원 수준.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 모두 1백 개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할 방침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학생의 적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학교들과 관련 기관

구분	관련 기관	부서	문의	관련 사이트
마이스터고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	02-2100-6393	www.mest.go.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마이스터고지원센터	02-3485-5105	www.meisterschool.or.kr
기숙형고교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02-2100-6456 02-2100-6507	www.koreaboardinghighschool.or.kr
농산어촌 전원학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02-2100-6521	
	공주대학교 교육복지연구센터	농산어촌교육발전센터	041-850-1534	keduwel.kongju.ac.kr
자율형고교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02-2100-6452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웃는다

외고·국제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전면 개편

2011학년도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등 학생 선발권을 가진 고등학교의 입시 방식이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전면 개편된다.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로 평가하는 이 제도는 사교육비 경감과 자율적인 학습 풍토 조성에 상당 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울산외고와 경기외고의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면접을 실시하는 등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시범 도입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해 이들 두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니 재미있는 공통점이 발견됐다. 지금까지 특목고 입시의 당락을 좌우해온 화려한 수상 경력은 합격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중학교 내신 성적과 학교활동 참여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고교 입시에 자기주도학습전형이 도입됨에 따라 공교육과 자발적인 학습만으로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에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에 맞춰 공부한 후 스스로 평가한 자기주도학습 결과와 학습 잠재력을 기준으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없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 선발 방식을 학생의 잠재력 계발과 학습역량 배양에 적합한 전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시대회·어학성적 등 사교육비 유발 요소 철저 배제

2011학년도부터 학생 선발권을 가진 학교 입시에 이 제도가 적용된다. 이를테면 외고,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 면접 등으로 선발하는 자율학교 등이 자기주도학습전형 적용 대상이다.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는 사교육비 유발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 면접은 할 수 없다. 면접은 오로지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선행학습과 사교육 열풍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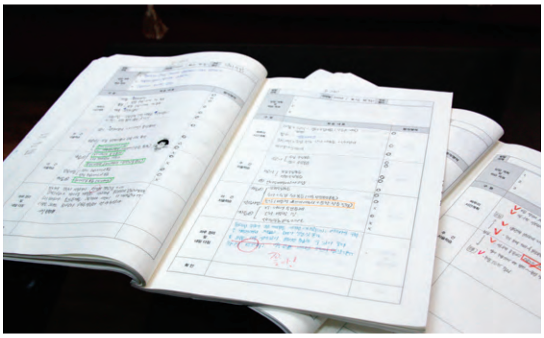
조영철 기자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에게 유리한 제도다. 방과 후 자율학습실에서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강원 화천중학교 학생들.

동아DB



동아DB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시범 도입한 울산외고(왼쪽). 평소 공부계획 노트를 쓰는 습관은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도움이 된다.

도해온 경시대회 경력과 인증시험 점수도 평가 기준에서 뺀다. 전형 과정에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청이 위촉하는 입학사정관이 직접 참여한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원칙적으로 모든 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입학정원의 20퍼센트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한다. 공립고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이를 적용하고, 사립고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선발 비율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고와 국제고에 도입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절차와 방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영어 내신 성적(1백60점 만점)'과 '출결'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영어 성적과 면접(40점 만점) 결과를 합한 점수로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단, 외고나 국제고가 아닌 고등학교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의 경우 영어 이외의 다른 과목 성적 반영 등 구체적 방안은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와 협의 후 이달에 확정할 계획이다.

"고교 입시에 자기주도학습전형이 도입됨에 따라 공교육과 자발적인 학습만으로 특목고에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선발 방식 변화는 잠재력 계발과 학습역량 배양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별로 운영하는 입학전형위원회는 학교의 입학사정관, 시도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 전공 관련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된다. 지원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는 학습계획서, 교사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제도 정착되면 왜곡된 입시 환경 바로잡힐 것"

학습계획서에는 지원 동기, 자기주도학습 경험 및 진로 계획, 독서 경험 등을 작성하면 된다. 이때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 실적 등은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경시대회 수상 경력과 인증시험 점수 기재 항목이 없어지고 대신 독서 항목이 신설된다. 교사 추천서는 학생의 전공 의지와 진로계획, 교내 봉사활동, 체험활동, 독서활동 등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해외 봉사활동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자기주도학습 방법과 진로계획, 국내 봉사활동, 독서 경험이 합격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교 입시제도의 또 다른 축은 입학사정관제. 지난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고등학교는 영재학교인 한국과학영재학교, 자립형 사립고인 민사고와 하나고, 자율형 고교인 충남 한일고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입학사정관제의 비율을 지난해 30퍼센트에서 올해 70퍼센트로 확대한다. 지난해 처음 정원의 50퍼센트를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한 민사고도 올해 입시에서는 그 범위를 80퍼센트로 넓히기로 했다.

과학고도 내년 입시부터 정원의 50퍼센트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자체 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한다. 국가 지원으로 운영되는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입학사정관제의 비중을 해마다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영재교육 전문업체 '하늘교육'의 임성호 기획이사는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달라진 고교입시제에 힘입어 올해 말에는 자율형 사립고에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반고에 비해 수준이 높고 대입에 유리하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상위권 학생들이 집중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이지선 사무관은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대안으로 떠오른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학교 교육에 충실하면서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키운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 제도가 정착하면 외고 등 특목고 진학에 대비해 초등학교 때부터 토플, 토익, 텝스 등 각종 인증시험을 준비하는 왜곡된 입시 환경이 자기주도학습 환경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경쟁률 17:1 선호고교 1위
그들은 왜 신도림高로 갈까

2010년 교육계 '깜짝 뉴스' 중 하나는 서울지역에서 첫 시행된 고교선택제 결과였다. 1단계 경쟁률이 17.1 대 1을 기록하며 '선호고교 1위'에 오른 곳은 뜻밖에도 지난해 개교한 구로구의 신도림고등학교였다. '황금학군'으로 소문난 강남 명문고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이 신생 공립고의 성공 비결은 뭘까.

지난해 2월 '수학·과학 중점형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새롭게 개교하는 신도림고의 첫 회 입학생 2백50명이 학교를 찾았다. 배정통지서 내용에 따라 신입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였다. 대부분의 학교는 입학 안내서와 유인물 등을 나눠주고 간단한 훈시를 한 뒤 학생을 귀가시킨다. 그러나 오세창(60) 교장과 19명의 교사들은 신입생들에게 뭔가 특별한 추억을 안겨주고 싶었다. 궁리 끝에 나온 아이디어가 스펜서 존슨의 에세이 〈선물〉을 선물하는 것. 선생님들은 편지봉투 모양의 스티커에 일일이 편지를 써서 책 안쪽의 속지에 붙였다.

'축 제1회 입학-꿈을 꾸는 시간은 행복입니다. 꿈을 이룬 시간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행복과 축복이 가득한 신도림고교 3년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2009년 3월 신도림고등학교 교직원 일동.'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자녀에게서 뜻밖의 '선물' 얘기를 전해들은 학부모들의 전화가 쉴 틈 없이 이어졌다. 대부분이 "학교의 정성에 감동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첫 회 신입생을 받기도 전에 이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를 '열혈 팬'으로 확보하는 순간이었다.

오 교장과 교사들이 신도림고로 발령받은 것은 지난해 1월. 첫 출근 날, 개교를 두 달 앞두고 공사가 한창이던 건물엔 변변한 화장실 하나 없었다. 번듯한 교무실도 없어 임시로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까지 동원됐다.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 없는 공간에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가뜩이나 짧은 겨울 해는 금세 자취를 감췄다. 그러니 퇴근시간은 늘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학교 꼴을 갖추는 것보다 시급한 문제는 신입생 이탈 조짐을 막는 일이었다. 신도림고는 행정구역상 구로구와 양천구의 경계에 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Y고, S고 등 '교육특구' 목동에 위치한 명문고가 즐비하다. 실제로 일부 학부모는 자녀가 '듣도 보도 못한' 이 신생 고교에 배정되자 조심스레 목동 쪽 고교로의 위장전입을 준비하기도 했다.



개교 1년 된 신생학교… 고교선택제 선호도 1위 파란

신도림고가 위치한 구로구, 그중에서도 신도림동은 교육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랫동안 허허벌판으로 방치됐던 데다 대표적 공장지대였던 탓에 교육환경이 좋을 리 만무했다. 단적인 예로 신도림고와 지척에 있는 신도림중은 남부교육청 관내에서 유일하게 교사의 평균 근무연수가 3년밖에 안 된다(대부분의 공립학교 교사는 한 학교에서 평균 4년을 근무한다). 임기를 채우기 전에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전근을 요

올해 신도림고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2월 24일 학교를 찾아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다.





신도림고 선생님들이 교수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도림고가 자랑하는 서울 시내 최고 수준의 개방형 도서관.

청하는 교사가 많기 때문이다.

학교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은 개교 후에도 이어졌다. 오 교장은 교내 모든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처리했다. 교복 디자인을 정할 때도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두루 경청해 다수의 선택을 따랐다. 학생들에겐 '신도림고 출신'이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오 교장은 1회 신입생 입학식에서 "최고의 시설에서 공부하게 해줄 테니 학교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 달라"고 호소했다.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촬영지로 유명해진 경기 가평의 한 휴양시설에서 열린 학생간부 수련회 때는 "신도림고 간부학생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최고 수준 도서관·친환경 인증 등 '최고의 시설' 자부

상장과 기념품 만드는 데 쓰이던 돈을 줄여 자율학습실에 안락한 기능성 의자를 들여놓고 서울시내 고교 중 최고 수준의 개방형 도서관을 세웠다.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고 석면 소재를 쓰지 않는 등 학교 건물 전체를 친환경 소재로 시공해 국내 최초의 '친환경 인증제 실시 학교'로 만들었다.

지난해 9월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학·과학 중점형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로 선정됐다. 신도림고는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생활지도 우수학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우수학교, 자율장학 우수학교로 선정돼 서울시교육감 표창을 받는 등 숨가쁘게 달려왔다.

하지만 1년에 불과한 준비기간으로 고교선택제에 대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장 인근 지역에만 줄잡아 10개나 되는 고교가 있었다. 그중 일부는 명문대 진학 실적을 검증 받은 곳들. 그러나 기우였다. 지난해 고교선택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여의도중에서 열린 구로구 일반계 고교 합동 진학설명회에서 신도림고 부스는 늘 방문객으로 북적였다. 설명회가 끝난 뒤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학교를 찾아오는 중3 학생도 급증했다. 그 결과는 수개월 후 '고교선택제 1위'로 나타났다. G

글 · 최혜원(주간조선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오세창 신도림고 교장

"교사들을 진학 전문가로 육성"



오세창 교장은 1978년 서울 강남여고에서 처음 교편을 잡았고 서초고 교감, 개봉중 교장을 거쳐 지난해 신도림고에 부임했다. 2012년 2월 정년퇴임을 앞둔 그에게 신도림고는 사실상 마지막 직장이다. 그의 말마따나 "신도림고 1회 졸업생과 공동운명체"인 셈이다. 불과 1년 만에 신도림고를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만든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 그는 이 질문에 손사래부터 쳤다. "그저 죽을힘을 다해 열심히 뛰었을 뿐"이란다.

"의욕이 넘쳐 자다가 벌떡 일어나 생각들을 휘갈겨 쓴 적도 여러 번이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선생님들과 협의할 안건이 떠올라 불쑥 전화를 걸기도 했지요. 공사(公私)가 구분되지 않던 시간이었습니다."
신도림고의 교훈은 '입지(立志), 궁리(窮理), 역행(力行)'이다. 미래를 위해 뜻을 세우고 진지하게 학문을 탐구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는 뜻으로, 윤리교사 출신인 오 교장이 직접 지은 것이다. 그는 "학교가 학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개개인의 적성을 개발하고 부족한 과목을 보충해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학교의 역할이고, 그 때문에 맞춤형 진학지도에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는 부장교사들에게 숙제를 한 가지씩 내줬다. A부장교사는 입학사정관제, B부장교사는 서울대 입시, C부장교사는 일본 유학 하는 식으로 각기 탐구과제를 부여한 것. 신도림고가 '진짜 명문고'로 거듭나려면 자체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아이디어였다.
늘 '제로'에 가까운 발전기금 통장 잔고에도 그만의 철학이 담겨 있다. 돈 들어갈 데가 많은 신생학교는 학부모에게서 무리하게 발전기금을 거둬들이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
송춘식 행정실장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학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엄격하게 실천해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농사도 정규 과목… "학교가 즐거워요"

창의 · 인성교육 '이우학교'를 가다

졸업식 알몸 뒤풀이에 전 국민이 '아차' 했다. 주입식 교육이 낳은 부작용의 단면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TV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란 말이 요즘 유행어다. 웃기려고 하는 말이긴 해도 점수경쟁에서 살아남는 아이들만 대접받는 우리 교육 현실에 시사하는 바 크다. 사람됨을 가르치는 교육, 경쟁에서 이탈한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 살리기는 가장 절실한 과제의 하나다.

이우학교



이우학교 학생들이 농촌에서 농사 체험을 하고 있다. 농사 체험은 특성화 교과 정규 과목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안학교인 이우학교에 재학 중인 전한(18) 군은 올해 고3이 되어 대학입시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느긋하다. 일반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 학교 고교과정에 입학한 전 군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인권, 사회봉사, 복지 관련 서적을 읽는 재미에 푹 빠졌다. 이전부터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전 군은 고2 때 인턴십 교과 수업을 통해 직접 인권활동을 해본 이후 더욱 흥미를 붙여 각종 신문 기사와 잡지, 논문을 탐독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과목 공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인턴십 수업 과제로 2박3일 동안 부산의 한 사회복지원에서 부모가 돌봐줄 형편이 못 돼 맡겨진 아이들을 돌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1 더하기 1'을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회봉사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다가 그 수업을 통해 실상을 잘 알게 됐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도 실감하게 됐어요."

고교 2학년 때 인턴십… 일대일 멘터 따라다니며 직업 체험

이우학교에는 고교 2학년에 인턴십 과정이 개설돼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진로를 개척하는 전(前)단계로, 각 직업군에 대한 현실을 바로 알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개설된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기업, 예술, 문화, 스포츠, 정치 분야 등 다양한 직업 세계에서 일하는 현직 직장인들을 '멘터'로 만난다. 그것도 1 대 1이다. 학생들은 멘터를 따라다니며 실제로 일도 해보고, 그 직업이 지향하는 가치도 몸소 깨닫게 된다.

일반 교과목 역시 학생 중심의 토론, 팀 과제, 프로젝트 수행식으로 진행된다. 문제풀이 방식의 수업은 철저하게 배제한다. 정치·사회 과목을 맡고 있는 이 학교 이수광 교감도 딱딱한 이론을 설명하기보다는 신문 사설이나 사회 이슈를 학생들에게 주고 함께 토론하며 각자의 생각을 자유스럽게 표출하도록 유도해 글을 쓰게끔 한다.

이 교감은 "자신의 생각에 타인의 생각이 덧붙여질 때 신선한 아이디어가 발현되곤 한다"며 "토론이나 과제 수행 과정에서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는 목적도 있다"고 했다.

이처럼 일반 중고교와 달리 자율적으로 기본 교과와 특성화 교과(심화, 보충) 및 창의적 재량활동 커리큘럼을 갖춘 '도시형 대안학교'는 창의·인성교육의 모범 사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도시형 대안학교의 교육 방식을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이를 보편화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자율적으로 특성화 교과 및 창의적 재량활동 커리큘럼을 마련한 '도시형 대안학교'는 창의·인성교육의 모범 사례다. 모든 교과 수업이 학생 중심의 조사, 연구, 토론 위주로 진행되며 적성을 고려한 자유선택과목도 개설돼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처럼 창의·인성교육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교육과학기술 부문 선진화를 위한 2010년 정부 정책의 핵심이 '창의와 배려'가 조화된 창의·인성 교육이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창의·인성 교육 기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과활동엔 입시 위주, 경쟁 중심의 수업 방식이 배제되고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요소들이 대폭 반영된다. 모든 교과 수업은 사례, 시나리오, 프로젝트, 토론, 협력학습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 보충수업 시간으로 전락해버린 예체능 교과도 각종 창작활동과 단체 경기 등을 편성해 학생들이 스스로 새롭고 독창적인 능력을 발굴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된다.

이우학교



성년 의례식을 체험해보는 이우학교 학생들.

체험활동을 확대한 것도 정부의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주 전략 과제다.

이우학교 오수은(17·고3) 양은 일반 중학교에서 1년을 다니다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른 뒤 대안학교에 입학했다. 스스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말할 만큼 일반 학교의 수업 방식에 불만이 많았고, 거기에서 오는 고민이 극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우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학교 커리큘럼을 적극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특히 '체험의 여왕'이라 불려도 될 만큼 특성화 교과의 참여도가 높다. 고1 때는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한 가지 정한 뒤 실제 그 현장을 체험하는 '통합기행'이란 과목을 신청해 필리핀의 빈민촌을 견학하고 온 뒤 '빈곤과 비정부기구(NGO)'란 보고서를 써냈다. 또 대학생들이 주로 참가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캠프에도 참가해 필리핀의 계단식 논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생태 보고서도 썼다. 학교에선 관심 분야에 교과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고 출석으로 인정해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자신감은 최고조. 학업 능률도 덩달아 올라갔다. 오 양은 이러한 체험수업을 통해 공부의 개념을 다시 정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 지원 시스템' 50개교 시범 운영

"'공부'라기보다는 '배움'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배움엔 끝이 없잖아요. 특히 체험을 통해 실패든 성공이든 제 스스로 결과물을 낼 때 많은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실패를 하더라도 배움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처럼 왕성하게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한 오 양이 장래 희망으로 바라는 직업은 아직 없다. 그러나 오 양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차원의 꿈을 꾸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우학교에서 볼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종합 지원 시스템을 다른 학교에도 개통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각종 자율, 진로, 봉사, 동아리 체험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학생생활기록부와 연계해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은 올 3월부터 일선 고교 50개교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중고교 외에도 대학생들의 봉사 리더십 배양을 위해 국내 및 해외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도 세웠다. 올해 3월부터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학생 의료·기술 봉사활동과 봉사 동아리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활동비를 지급한다. G

글 · 유재영 기자

“열정 없으면 창피해서 학교도 못 가요”

학생 선택권 늘리니 경쟁력 쑥쑥

40, 50대라면 몇 년째 똑같은 ‘레퍼토리’만 반복하는 선생님들 때문에 수업시간에 하품깨나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짜증나고 불만스러워도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불경(不敬)이었다. 그러나 이젠 옛날이야기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획일적인 교육으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교육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운영이 모범답안이다.

서울 중랑구의 원묵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학교 축제인 ‘묵향제’를 손꼽아 기다린다. 방송제, 야외 가요제, 연극제 등 다양한 공연과 체육대회 등을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은 단순히 학생들의 보조 역할만 한다. 교사들이 반장과 임원을 학급 운영위원으로 뽑아 허드렛일을 시키면서 축제 기획의 ‘전권’을 휘두르던 지난날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학생들의 참석률과 호응도가 높다.

원묵고 축제는 내용이 알찬 것으로 유명한데, 그 뒤엔 ‘끼교실’도 한몫한다. 말 그대로 자신의 ‘끼’를 갈고닦을 수 있는 기회다. 스스로 자신의 특기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청을 학교가 받아들인 것이다. 예전의 ‘특별활동’ 수업과 유사하지만, 그때는 학교 선생님이 대충 이론만 설명하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때로는 기본과목 보충수업 시간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학교 행사나 교사의 개인 사정이 생길 때는 무조건 생략되는 게 다반사였다.

그러나 원묵고 학생들은 학교 정규수업과는 분리된 ‘끼교실’ 별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특기를 키워나갈 수 있다. 이러다 보니 끼가 넘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학생들 사이에선 ‘끼가 없으면 창피해서 학교도 못 간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원묵고



자율화된 학교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특기, 적성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원묵고 학생들이 외부 전문가로부터 요리 교육을 받고 있다.

이처럼 원묵고는 학생들의 자율을 존중하는 국내 최초의 자율학교다. 2006년 개방형 자율 시범학교로 지정된 원묵고는 학생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엔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교육과정 혁신학교’로 선정돼 올해부터 교과교실제 등 일반 고교와는 차별화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원어민 영어회화, 수학 클리닉, 중국어 회화, 자기주도학습 신장반 등 ‘무(無)학년-무(無)계열 프로그램’도 편성했다. 또한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 학교도 운영하고, 교과 학습 부진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대학생 멘터링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스스로 물리적 체벌을 줄이기 위해 상벌제도를 도입해 상점 학생에겐 상을 주고 벌점이 많은 학생에겐 텃밭 가꾸기와 복지관 봉사 기회를 준다. 벌점을 받는 학생에게도 벌 대신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 보람의 기회를 주는 셈이다.

원묵고처럼 자율화된 학교 모델의 창출은 정부 교육개혁에서 또 하나의 중점 과제다. 학교 자율화는 곧 공교육 정상화의 해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발표한 교육개혁 방안에서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교육’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학교 자율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을 줄이고, 대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해 학생 수준별, 취미별 맞춤 지도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교육도 수요자 중심” 학교 자율화 적극 추진

이 기준에 따라 개인별 학력향상을 위한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하되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책임지도 시스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준별 수업, 방과 후 프로그램, 멘터링 등의 도입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교직원 인사에 대한 학교 자율권 확대와 외부 전문가들을 신규 교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장미란 서기관은 “학교와 교육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교사 초빙 권한을 확대했다”며 “또

한 산업 및 예체능 분야 전문가나 수학, 과학, 외국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어촌, 벽지 등 교사들의 재직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근무 예정 학교나 지역을 미리 정해 교원을 선발하도록 하는 '학교·지역 단위 교원 채용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장이 갖는 교원 전보 권한도 법령에 명시해 강화한다. 그러나 비정기 전보 때는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해 학교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전보권 행사는 제한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해 교사 전문성 심화

또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학부모들의 공교육 부문 신뢰 향상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교원 평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아직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2010년 3월부터 시도교육청 자율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이 시행안에 따르면 1년에 1회 이상 국·공·사립을 포함한 모든 초중고는 자율적으로 평가 시기(10월 31일 이전)를 정하고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석해 교원의 학습 능력과 생활지도 능력을 평가한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과 같은 전문성 심화 기회를 부여한다.



동아DB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 및 운영 활동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 **학교 자율화는 공교육 정상화의 해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을 줄이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해 학생 수준별, 취미별 맞춤 지도와 인성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교육과정 및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전문성을 살린 자원봉사, 학교 교육 모니터링 등을 하는 학부모회도 탄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과거 학부모회는 학급임원 부모 중심으로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아버지들이 발 벗고 나선 충북 음성의 수봉초등학교 꿈나무 육성회와 경기 남양주의 판곡중학교 '행복한 꿈터' 학부모회의 사례를 보면 확실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수봉초등학교 꿈나무 육성회는 36명의 아버지 자원봉사자가 매일 학생들의 교외생활을 지도하고 있으며, 매달 저소득층 학생 5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마을별로 '마을 스승제'를 운영해 학생들의 등교와 하교를 돕는다. 성적이 크게 향상됐거나 예체능 실력이 뛰어난 학생은 '수봉스타'로 선정해 상품권을 준다. 정기적으로 담임교사, 전담교사 및 전체 교직원들을 만나 교육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이다.

'행복한 꿈터' 학부모회는 30여 명의 학부모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공부를 직접 챙기는 모임이다. 방과 후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도서실을 제공하고 자율학습을 지도하는 '판곡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와는 별도로 학부모 2, 3명이 한조가 돼 요일별로 방과 후 학생들에게 한국사, 한자, 독서, 영어 단어를 가르치고 금요일에는 주먹밥 만들기, 김치 담그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즐길 수 있게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학부모회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올해 2월까지 공모를 통해 전국 2천 개 학교의 학부모회를 선발해 평균 5백만원씩 모두 1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G

글 · 유재영 기자

EBS만으로 대학 가기 "문제없어요"

초호화 스타 강사 군단으로 사교육 시장에 한판승

'떠먹여주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교육방송(EBS)이다. 초중고생은 물론 취학 전 아동, 성인까지 총망라하는 EBS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사교육을 대체하는 수능강의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경쟁력 있는 학생을 길러내기 위한 EBS의 수능강의는 올해 'EBS만으로 대학 간다'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동아DB

사교육 경감대책의 하나로 시작된 EBS 수능방송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사회탐구 과목 점수가 너무 나오지 않아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3 중반까지 20~30대 초반에 점수가 머물고 있어 답답했는데, EBS 최태성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즐겁고 재미있게 사탐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수능에서 국사와 근현대사 모두 만점 받을 수 있었구요."(닉네임 애리누나, 2009년 8월. 초중고생의 교사 리뷰 블러그 '올티쳐')

"학원 강사가 제일 두려운 상대… EBS 수능방송 차석찬, 최태성. 차석찬의 경우 재작년에 등장해 국사를 완전히 천하통일 했고, 최태성은 한국 근현대사를 완전히 EBS 전통으로 이끌어 냄. 이들은 학원강사가 아닌 학교 선생님."(닉네임 새로운 희망, 2010년 1월.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 '수만휘–수능날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자')

2004년 4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 정책'으로 교육방송(EBS) 수능강의가 시작된 지 만 6년이 돼가면서 EBS 수능 강사들도 학생들 사이에서 시중 학원 강사 못지않은 '명강사' 반열에 오르고 있다.

외딴 섬서 EBS만으로 서울대 합격

EBS 스타 강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강사가 '갈아만든 사회탐구' 한국 근대사 강의를 맡고 있는 최태성(서울 대광고) 교사. 수능방송 이전인 2001년부터 EBS 강의를 시작한 최 교사의 비장의 무기는 일명 '판서'로 불리는 칠판 필기법이다.

그는 교과서에 흩어져 나열돼 있는 사건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묶어 '판서' 한 장으로 칠판에 정리해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3·1운동의 경우 민족대표 33인의 모임부터 유관순으로 대표되는 학생과 민중운동, 제암리 학살과 같은 일제의 대응까지 '판서' 한 장에 요약된다.

EBS 수능강의는 2010년 대학입시에서 육지에서 2시간 떨어진 전남 신안군 도초도에 사는 문가영(18·도초고 졸업) 양이 지역균형 선발로 서울대 인문계열 수시모집에 합격한 것이 화제가 되며 중요성이 새삼 확인됐다.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사교육 청정지역'인 섬마을 도초도에서 문 양에게 희망을 준 것은 EBS 수능강의였기 때문이다.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계층을 위한 디딤돌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학원이나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 못지않은 '명강의'로 만들기 위해 2010년 다시 한 번 파격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EBS는 지난 1월 24일 스타 강사 30명을 영입하고 2011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수능강의 연간 커리큘럼 보강 계획을 밝힌 데 이어 1월 25일부터 EBS 플러스1TV 방송과 인터넷(EBSi) 탑재를 시작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EBS 수능강의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비롯해 사설 인터넷 강의업계에서 이른바 '스타'로 분류되는 강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언어영역의 박담, 외국어영역의 최원규, 사회탐구의 설민석·이용재, 과학탐구의 민석환·김철준 등 강사가 1년간 핵심 강좌를 맡는다. EBS 강사진은 기존의 수리영역 심주석, 사회탐구 최태성 등 학교 교사 중심 스타 강사진에다 이들 강사들이 합류함으로써 '초호화 스타 강사 군단'을 확보한 셈. 또 올해 처음 도입된 '파견교사제'에 따라 최태성 등 학교 교사 4명은 1년 동안 EBS에서 교재개발과 연구, 강의법 개발 등 수능강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용 압축강의 콘텐츠도 제공

이번 개편에서는 최상위권 수험생들까지 끌어들이는 데 주안점을 둔 것도 특징이다. 올해 최상위권 대상 강좌를 늘리다 보니 역대 최다 강좌를 열었던 지난해보다 강좌 수가 늘었다. EBS가 올해 개설할 강좌 수는 8백10개. 이후 추가 개설될 기획 특강류를 제외하고도 이미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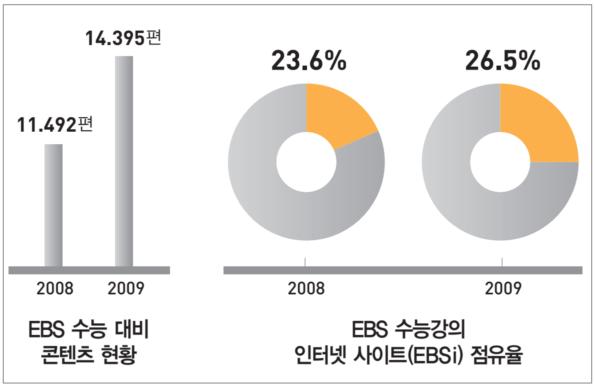
또한 11월 수능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마련하되 수능 수험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과정평가원 실시 6월과 9월 2차례 모의고사에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3단계 강의를 사전에 기획 제작해 인터넷에 탑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중요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출제에 EBS 강의를 연계하고 있어 연간 커리큘럼에 충실히 맞춰가며 강의를 듣게 되면 상위권은 과목별 만점, 중위권은 2, 3등급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EBS 측의 설명이다.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EBS는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는 수능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수능 대비 강좌와 고1, 고2 내신 강좌를 5분으로 압축한 '압축강의'를 올해 처음 선보인 것. 압축강의는 50분 분량의 수능특강을 사진, 동영상, 그래픽을 동원해 5~10분 동안 압축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EBS는 올해 8백여 편의 압축강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압축강의는 2시간 연속 시청만으로 교재 한 권을 완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BS 측은 압축강의가 EBS 교재를 활용하는 방과후 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 등에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동아DB

PMP, 모바일폰 등 이동식 기기에 내려받아 공부할 수 있는 EBS 수능방송은 올해 '스타 강사진'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EBS 박상호 학교교육본부장은 "이번 개편은 국민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EBS 강의만으로 수능 만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수험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출제에 연계하는 EBS 수능 교재와 스타 강사들의 명강의, 짜임새 있는 연간 커리큘럼에 충실하면 중위권은 물론 상위권 학생들도 수능 등급을 한두 단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EBSi 홈페이지 ebsi.co.kr

곽덕훈 EBS 사장

"명품 수능강의로 사교육 이기겠다"

"EBS 사장 취임 후 4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간 평생교육 부문은 더욱 공고히 하고, 학교 교육 부문을 보완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곽덕훈(61) EBS 사장은 취임 이후 해온 일에 대해 이렇게 축약했다. 곽 사장은 한국방송통신대 교육매체개발연구소장과 교무처장을 거쳐 EBS 수능강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뒤 2009년 10월 EBS 사장으로 취임했다.

곽 사장은 "지난 1월 6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 교육제작센터를 학교교육본부로 격상하고 한시 조직이던 교육방송연구소도 상설기구화해 학교 교육 부문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2월 22일 봄 개편과 함께 EBS 홈페이지를 수요자 편의에 초점을 맞춰 개편했고, 새로운 EBSi 사이트도 3월 2일 오픈하게 됐다"고 말했다.



EBS의 이번 봄 개편의 주요 내용은.

EBS는 국가 기간 교육방송으로서 사회적 소명을 다하고 '변화'와 '인재대국'을 키워드로 하는 2010년 봄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학교 교육 보완 및 공교육 지원 강화,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으로의 기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품격 프로그램 제작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사교육의 대안으로서 EBS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그런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EBS는 수능강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4개 영역의 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능연계율 강화, 강의 시장 경쟁력 제고, 서비스 품질 제고, 입시정보 강화가 그 내용입니다.

EBS 수능방송의 자랑을 꼽는다면.

출중한 실력과 강한 열정을 모두 구비한 강사진이 첫째입니다. EBS 수능방송 출연 교사와 강사의 수준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EBS 집필진이 개발한 교재 역시 최고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의 감수 절차까지 거친 완성도 높은 교재는 EBS 수능강의의 핵심 강점입니다. 수능 준비를 위한 강의 서비스가 무료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죠.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합니까.

지난해 11월 23일 많은 학부모, 학생들의 정확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EBS 홈페이지에 사장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시간 답변을 하는 한편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청이 EBS 정책과 업무에 즉각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능방송 외에 올해 역점 두실 사안은 무엇인지요.

사교육비 중 80퍼센트를 차지하는 초중등 교육 부문 프로그램을 대폭 보완하는 일입니다. 현재 초중등 관련 강좌는 EBS 재정사정으로 일부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무료 강좌를 늘리고, 다운로드 서비스를 확대하려 합니다. 또 모바일 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구축과 학교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돈 없다고… 몸 불편하다고… 공부, 포기하지 말자

돈이 없어서,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못 배우던 시대는 갔다. 정부가 마련한 차별 없는 교육복지 정책 덕분이다.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배움은 희망이다'라는 소중한 깨달음을 안겨준 그 면면을 살펴본다.



일러스트 · 남동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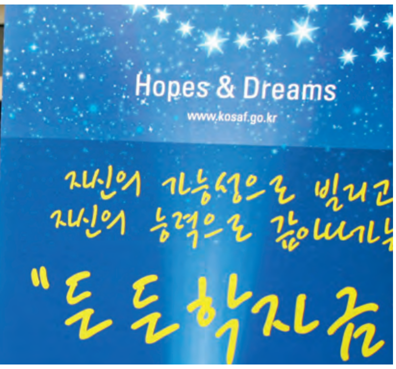
학비 걱정 끝! 스스로 벌어 갚는다 | 든든학자금

"며칠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갔는데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10학번'으로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우정욱(가명·20) 씨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두 달 전만 해도 우 씨는 신입생으로 봄을 맞이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5백만원이나 되는 등록금을 구할 길이 없었다. 그러던 중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우 씨는 주저하지 않고 이를 통해 등록금을 마련했고 4년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정부는 학업을 지속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건 때문에 망설이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 Income Contingent Loan), 즉 '든든학자금' 제도를 실시했다. 대학마다 장학금제도와 학자금 대출제도가 있지만,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갈 뿐 아니라 대출금 상환 부담도 컸다. 또한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채무자가 졸업하지 않더라도 매월 이자를 갚아야 하는 데다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리금도 갚아야 해 소득이 없는 학생들에게 압박감을 줬다. 이자를 갚지 못하면

동아DB







든든학자금 제도로 대학생들은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오른쪽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북한 이탈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인 새날학교 개교식. 정부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마련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거나 추가 자금 대출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도 컸다.

그러나 든든학자금은 학생들에게 소득이 생기기 전에는 상환을 유예해준다. 소득이 생겨도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퍼센트만 상환하면 되고, 만약 실직자가 되면 다시 상환이 유예된다. 이런 장점 때문에 앞으로는 대출금을 갚거나 새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기 중에 임시직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크게 줄 전망이다.

맞벌이 부모 육아 부담 덜어주기 | 유아교육 선진화

대구에 사는 박영주(43) 씨는 주변에 잦은 야근과 야간 업무 종사로 육아 문제로 고생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자 이들을 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통합 야간반'을 운영해달라며 '생활공감 아이디어'로 제안했다. 정부는 박 씨의 아이디어를 2009년 생활공감 국민 아이디어 대통령상으로 채택하면서 올해부터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유아교육과정을 개정해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올해 3월부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백50곳의 유치원에서 시범 운영되는 '야간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유아나 한부모 가정의 유아 3천명을 대상으로 한다.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오후 7시까지 종일반에서 교육을 받고 이후 오후 1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일반 교육은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창의·인성교육을 중심으로 놀이 위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예술, 과학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의 종일반 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유아교육 학비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3~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비율은 38퍼센트. 2001년 27퍼센트에 비해서는 높아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취원율 평균 71.2퍼센트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유아 학비를 경감하기 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립·사립·직장부설 유치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두 자녀 이상 출산을 장려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정의 둘째 아이부터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국립 월 5만7천원, 사립 19만1천원)하고 있다.

3세~ 17세 의무교육 확대 |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

정수민(가명·50) 씨의 딸 유나(가명·16) 양은 어릴 적 희귀병에 걸려 시력을 잃었다. 정 씨는 자신이 아니면 딸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선뜻 고등학교에 보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딸이 부쩍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정 씨는 집 근처 특수교육지원센터 사회복지사에게서 "정부의 특수교육 지원이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올해 3월부터 초중학생뿐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도 의무교육을 받는다.

우선 3월부터 만 5세 이상 유아 및 고교 과정(만 15~17세)의 장애학생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만 4세 이상 유아, 2012년에는 만 3세 이상 유아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1천42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보육시설 7백62곳을 운영한다. 특히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전문계 고교 가운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곳을 지정해 전문적인 진로·직업교육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학생을 위해 특수학교에만 설치하던 진로·직업교육 과정인 전공과도 전문계 고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은주 특수교육지원과장은 "우리나라의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은 13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나라가 됐다"며 "2012년에는 만 3세 장애아동에게 의무교육을 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동아DB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서울시 남부교육청 Wee센터

서울시 남부교육청 Wee센터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특별 성장 프로그램을 마련해 아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있다.

"북한 이탈 학생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이들이 한국에 입국한 뒤 3개월간 적응교육을 받는 하나원에서의 초기 적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들을 추가 파견했고, 교과 보충교육, 진로·직업교육 등을 돕는 일대일 맞춤형 멘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기학생에 다중 안전망 시스템 | Wee 프로젝트

소녀가장 혜미(가명·17)는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입에 댄 '문제아'였다. 다섯 살 아래의 동생과 단둘이 살던 혜미는 집으로 불량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셨다. 보다 못한 인근 지구대 경찰이 'Wee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 결과 혜미와 동생은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학생'들로 판명됐다. Wee센터에선 혜미의 복학신청을 했고, 복지사와 선생님이 등·하굣길을 함께하며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현재 혜미는 간호사의 꿈을 키우는 예쁜 학생으로 변모해 있다.

혜미처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학생들이 16만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 열악하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 지원제도 'Wee 프로젝트'를 지난해 마련했다. 학생들이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 서비스다.

다중 안전망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Wee 프로젝트는 먼저 학교 차원의 'Wee 클래스'를 마련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소질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별 프로그램과 학습 클리닉, 체험 프로그램들로 이뤄져 있으며 올해 2천5백30개교로 그 수가 늘어난다.

2차 안전망은 지역교육청 차원의 Wee센터. 올해 1백30개소로 늘어나는 이곳은 전문가들이 진단, 상담, 치료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준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된 Wee스쿨은 위기상황이 심각한 학생을 장기간 치유해주는 곳. 현재 3개의 Wee스쿨이 마련돼 있으며 소수 정예의 기숙형 장기 위탁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역량강화팀 최인섭 연구관은 "Wee 프로젝트에는 학습 부진 및 학교 부적응 학생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며 "그동안 Wee 프로젝트를 통해 무단결석률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학업 중도 탈락률도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그간의 성과를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함께하는 아름다운 배움 | 다문화·北이탈 학생 지원

베트남 출신 어머니를 둔 초등학교 2학년 인호(가명·9) 군은 친구들에게서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림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인호의 담임선생님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방과 후에 따로 우리말을 가르쳤고, 부모를 불러 인호와 함께 한국문화를 체험하도록 했다.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다문화 관련 특별수업을 했다. 인호는 2학년 마지막 학기에 학급 반장으로 뽑히면서 자신의 꿈은 "제2의 오바마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1백만명 거주 시대가 열리면서 이들 자녀의 학습권 보장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이 발표한 인천 관내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1천99명. 전국적으로는 약 2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피부색과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다문화 교육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습지도와 상담을 위해 마련된 '멘터링 제도'는 올해 3천명으로 그 대상을 늘렸다. 대학생 멘터들은 방과 후 또는 방학기간 중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한국어 공부, 기초학습 등을 가르치면서 효과적으로 관리해준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이 다니는 학교를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로 지정해 언어·학습·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만큼이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북한 이탈 학생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북한 이탈 학생들이 한국에 입국한 뒤 3개월간 적응교육을 받는 하나원에서의 초기 적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들을 추가 파견했고 교과 보충교육, 진로·직업 교육 등을 돕는 일대일 맞춤형 멘터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체계의 허브가 될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생겼다. 이 센터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사회와 학교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배움, 그 자체를 즐겁게"

'교육 강국' 주한 대사 부인들이 풀어놓은 명품 공교육의 비밀

'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의 교육 방법은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야간자율학습도, 학원도 없지만 명품 공교육으로 교육 강국이 된 나라들의 교육 환경과 철학, 방법 등을 각국 주한(駐韓) 대사 부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다.

학비 걱정 없이 교육 기회 균등 보장 | 핀란드·스웨덴

'노키아'와 '자일리톨'로 유명한 핀란드. 하지만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핀란드를 'PISA 1위'로 기억한다. 핀란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5세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수년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리트바 부에리스토(Ritva Wuoristo) 핀란드 대사 부인은 "학비 걱정 없이 모든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리는 것이 핀란드 교육의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핀란드에는 우리나라의 '8학군' 같은 지역도 없고, 일류대라 불리는 학교도 없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전공에 맞춰 집과 가까운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아예 없다. 입시 스트레스도 먼 나라 얘기다. 학생들은 여섯 살이면 예비학교에 다닌다.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비슷한 곳이다.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인 데다 입학 전 학교생활 준비를 할 수 있어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다닌다. 일곱 살이 되면 종합학교에 입학해 9년 동안 의무교육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학비는 물론 교과서와 학용품, 급식, 셔틀버스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학교에서는 수학, 영어, 국어 같은 기초과목은 물론 예체능과 환경, 수공예까지 가르친다. 교육의 양과 질은 지역이나 학교에 상관없이 모두 같다.

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보장하는 이웃나라 스웨덴도 마찬가지다. 스웨덴 어린이들은 일곱 살이 되면 기초학교에 입학해 16세까지 의무교육을 받는다.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죠.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스웨덴 교육의 궁극적 목표예요."

에바 바리외(Eva Vargö) 스웨덴 대사 부인은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 바리외 여사



뉴질랜드의 교육은 토론을 중시한다. 토론을 통해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가르친다. 사진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수업시간.

는 "북유럽 국가의 대학은 졸업이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낙제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에는 사교육이 거의 없다. 학과 공부를 가르치는 학원도 찾아볼 수 없다. 공교육이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에서 교사가 되려면 석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교사가 인기직업이다 보니 매년 5천명 정도의 우수한 인재가 지원한다.

부에리스토 여사는 "학교는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교사의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 방식을 시도한다"고 귀띔했다. 교실 구성에 모여 토론을 하거나 체스 게임 등을 통해 수학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기에 가능한 일이다.

스웨덴에서는 최근 '팀 티칭(Team Teaching) 수업'이 학부모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수업 주제가 '직물'이라면 영어·가정·수학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한다. 가정교사는 직물의 특성이나 바느질 방법 등을 가르치고, 수학교사는 직물의 치수와 땀의 개수 등을 활용해 수 개념을 이해시킨다. 영어교사는 이 모든 수업을 영어로 강의한다. 바리외 여사는 "팀 티칭 수업은 교사들이 자신의 전문 교과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자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수준 높고 밀도 있는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강한 북유럽 학부모들은 학습관리보다 독서교육에 신경을 많이 쓴다. 독해력이 문제해결력과 직결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부모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동화책을 읽어준다. 숙제를 하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곧바로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책을 함께 찾아보며 사고를 확장해 나가도록 격려한다.

도서관이 발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유럽 아이들에게 도서관은 '놀이터'다.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소설과 논픽션 등 다양한 책과 잡지를 읽거나 소파에 앉아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콘서트와 음악회는 물론 악기 대여, 녹음 등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부에리스토 여사는 "헬싱키 인근에 있는 한 초등학교는 도서관에서 하루씩 묵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게 돕는다"고 말했다.

교실 안에서도 밖에서도 토론수업 | 뉴질랜드

뉴질랜드 교육의 핵심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토론이다. 토론은 교실 안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학생들은 적극적인 토론을 위해 환경운동이나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미셸 만(Michelle Mann) 뉴질랜드 대사 부인은 "뉴질랜드 학생들은 세계 토론대회에서 네 차례나 우승한 바 있다"며 "다양한 경험과 체계적인 토론수업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체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동아DB

스웨덴의 대표적인 '팀 티칭 수업'은 동시에 여러 과목을 함께 가르쳐 학생들이 수준 높고 밀도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다.

뉴질랜드의 공교육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수업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던져주고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분수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는 '케이크 2조각을 3명이서 사이좋게 나눠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 같은 문제를 낸다. 학생들은 케이크를 공평하게 나눠 먹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수 개념을 익힌다. 만 여사는 "교사의 역할은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무교육은 6세부터지만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다섯 살이 되면 학교에 간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동시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여느 나라들과 달리 다섯 살 생일이 지나면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다. 거주지, 학습능력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입학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만 여사는 "사회적인 나이보다 아이들의 상태나 성향이 학습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한 수월성 교육의 단면"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학제는 초등(Primary) 6년, 중등(Intermediate) 2년, 고등(College) 5년 등 모두 13년으로 한국보다 1년이 길다.

뉴질랜드 학부모들은 선행학습보다 사고력 향상에 더 관심이 많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나도록 얇고 작은 영어(국어)책 한 권만 배워도 전혀 조급해하지 않는다. 누가 먼저 빨리 아느냐보다 누가 더 깊이 생각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교 역시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시험 대신 스포츠 활동과 클럽활동 등을 장려하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4개 공용언어 살린 다문화·다언어 교육 | 스위스

스위스에는 교육부 장관이 없다. '의무교육이 7세부터 9년간'이라는 사실을 빼고는 각 주마다 특색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피오렐라 쿠퍼(Fiorella Kupfer) 스위스 대사 부인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심과 격려로 개인차를 줄여주는

것'을 스위스 교육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다. 스위스는 하나의 통합된 정부 아래 각 주의 자치권을 최대한 인정하는 연방공화국으로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한다. 각 주는 4개의 공용언어(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중 하나를 택해 교육하고, 초등학교 학제도 5~7년까지 다양하다.

과외식 수업이 보편적인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초등학교 6년이 끝나면 성적에 따라 학급을 상중하로 나눈다. 각 교실에는 정교사와 보조교사 2명이 들어온다. 수학시간을 예로 들면, '곱셈'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정교사는 다양한 곱셈 문제가 빼곡한 학습지를 나눠준다. 학생들은 짝을 지어 교실, 복도 등에서 자유롭게 서로 문제를 내고 답을 맞히며 공부한다. 과제 수행을 마치면 교실로 돌아가 교사에게 학습결과를 확인받는다. 정교사가 내는 문제를 모두 맞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보조교사에게 개인지도를 받으며 보충학습을 한다. 쿠퍼 여사는 "우리는 모든 학생이 동시에 똑같은 학습목표를 달성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관심과 격려를 통해 개인차를 줄여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작은 나라에 공용어가 4개나 있으니 의사소통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법도 한데 별 문제는 없다. 초등학교 때부터 어학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쿠퍼 여사는 "스위스에서는 외국어로 된 표지판과 간판 등을 쉽게 만날 수 있다"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영어를, 4학년 때부터는 프랑스어를 배운다. 외국어교육은 인문학교를 가느냐, 직업학교를 가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까지 계속된다"고 전했다.

스위스의 영어교육은 크로스워드 퍼즐, 팝송, 영어동화 등을 통해 시행된다. 문법 암기보다 말하기와 듣기 위주의 놀이식 수업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자극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가정에서는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쿠퍼는 "스위스 사람들은 3개 국어를 섞어가면서 대화할 때도 있다"며 "서툴고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영어로 자주 대화하며 입 밖으로 내뱉어야 실력이 늘 것 아니냐"고 조언했다.

현장 중심 예술 실기교육 활발 | 체코

체코는 문화예술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하엘라 보프코바(Michaela Vovková) 체코 대사 부인은 "정부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교육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릴 때부터 예술교육을 받게 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 일반 학교에서도 현장 중심의 예술 실기교육에 중점을 둔다. 유적지 답사나 박람회를 단체로 견학하는 것은 물론 콘서트, 인형극, 오페라 등을 관람하고 감상문을 써오라는 숙제도 자주 내준다. 그는 "학교는 아이들이 예술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프라하에 있는 한 초등학교는 복도를 비롯한 건물 곳곳에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해 학교를 갤러리처럼 꾸몄다"고 말했다.



동아DB

핀란드는 학비 걱정 없이 모든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은 핀란드 한 중학교의 토론 수업.

> **"스위스의 영어교육은 크로스워드 퍼즐, 팝송, 영어동화 등을 통해 이뤄진다. 문법 암기보다 말하기와 듣기 위주의 놀이식 수업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자극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가정에서는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체코 학교의 교실 풍경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사가 학생들 앞에 서서 특정 과목의 지식을 설명하거나 해설하는 강의식 수업을 주로 한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토론식 수업 위주로 진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프코바 여사는 "강의식 수업은 교사가 가진 지식을 학생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한국이나 체코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데는 강의식 수업의 힘이 컸다고 본다"고 말했다.

체코에서는 각 과목별로 쪽지시험을 보고 그 점수로 학기 성적을 결정한다. 쪽지시험이라고 우습게 봐선 안 된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배우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공부량이 만만치 않다. 보프코바 여사는 "체코 학부모들은 꾸준히 공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잦은 쪽지시험은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체코 교육이 우리 교육과 가장 다른 점은 '공부를 직업 선택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에게 배움이란 자아발전을 위해 평생 동안 즐겨야 할 활동 중 하나일 뿐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곧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성적에 매달리는 대신 일찍부터 직업훈련을 받으며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것도 이러한 교육철학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G

글 · 송보명(중앙일보 교육섹션 기자)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의 첫 걸음입니다.

그랜드바겐을 통해 북핵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원칙이 바로 서 있는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상호존중과 진정성 있는 남북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올 한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부 홍보대사
정 준 호

통 일 부
MINISTRY OF UNIFICATION

5년내 자연분해 '바이오 플라스틱'이 뜬다

생분해 원료보다 생산비 저렴… 친환경 재료 개발 '홍지'

스티로폼, 비닐, 플라스틱….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을 방출하고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대표적인 합성물질들이다. 사용하기 간편하지만 자연과 사람에는 해로운 이들 물질을 대신할 만한 친환경 재료를 개발해 각종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다.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 '홍지'가 그 주인공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이나 정부, 각 가정에서도 쓰레기나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하지만 아무리 폐기물을 줄이려 해도 시장 한 번 보고 나면 쓰레기가 한 짐. 대부분의 식료품 포장재나 세제, 화장품 용기 등이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비닐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안 쓸 수는 없고, 하지만 쓸 때마다 찜찜한' 포장용기, 자연친화적 재료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 바로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기업이 친환경 포장재 개발 및 생산업체 홍지와 홍지림이다. 홍지에서는 전분, 섬유소, 식품 첨가물 등 자연 상태에서 쉽게 썩는 친환경 원료를 개발하고, 홍지림(이하 '홍지'로 통일)은 이를 원료로 도시락 용기, 쇼핑백, 비닐봉투, 식품 포장·판매용기, 화분, 산업·농업용 비닐 등을 생산한다.

홍지의 이러한 친환경 제품은 대형 피자업체의 조각 피자 포장재, 화장품 회사의 제품 완충 포장재,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클리어 파일과 친환경 비닐봉투, 우체국의 친환경 투명 우편창 봉투 등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친환경 제품은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고,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며, 재활용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과 달리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이다.

보유 특허만 9개… 환경호르몬 걱정도 뚝!

홍지의 연구소장이자 최고기술경영자(CTO)인 유영선 박사는 친환경 제품을 써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반 플라스틱을 성형 가공하는 과정에는 각종 첨가물을 넣을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다이옥신이나 각종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환경호르몬이 방출됩니다. 반면 자연 친화적 재료로 만든 생분해, 혹은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방출되지 않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도 안심이지요."

이들 친환경 제품의 단점이라면 기존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



홍지는 전분, 섬유소 등 자연 상태에서 쉽게 썩는 친환경 원료를 개발해 도시락 용기, 쇼핑백 등을 생산하고 있다.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것. 바이오 플라스틱은 기존 제품에 비해 품질과 가격이 거의 같거나 약간 비싼 반면, 생분해 플라스틱은 일반 제품보다 두세 배 비싸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나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지면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 회사의 경쟁력은 높은 기술력이다. 현재 홍지가 보유한 특허는 9가지. 전분을 이용한 생분해 플라스틱 특허, 목재나 면화 등의 섬유소를 이용한 셀룰로오스 특허, 전분 및 식품첨가제 등을 이용한 바이오 플라스틱 등이 그것이다. 현재 출원 중인 특허도 여럿 있다.

홍지는 농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자연분해 멀칭필름을 개발하기 위해 성균관대, 연세대와 공동연구를 했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팀과 자연 상태에서의 사용 적합성 실험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이 같은 연구 개발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제품 생산과 영업은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관련 업체와의 상생을 모색하고 있다.

유 박사는 "현재 국내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10여 개 있지만 활발히 활동하는 업체는 3, 4개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소량생산 수준에 그치고 있거나 너무 비싼 가격, 사용 중 분해 가능성, 내열성 부족 등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더 많은 국내 업체의 참여, 신제품 개발, 원가 절감, 품질 개선을 통해 국내 친환경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해외로 판로도 넓혀가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G

글 · 김정희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홍지 Tel **02-2263-8811 www.hongjee.com**

생분해 플라스틱 vs 바이오 플라스틱 뭐가 다를까?

일반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릴 뿐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각종 환경호르몬이 방출되며, 고갈 위험에 놓인 석유 자원을 주원료로 한다. 하지만 재활용성은 높기 때문에 쓰레기로 버릴 때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전분이나 지방족, 셀룰로오스 같은 생분해 수지로 만든 제품으로, 인체 유해물질이 방출되지 않고 6개월이면 자연에서 분해되는 등 자연 친화성이 높다. 하지만 열과 충격에 약해 장기간 유통할 수 없으며 특히 된장, 고추장, 새우젓 같은 발효식품은 보관하기 어렵다.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쓰레기를 배출할 때 플라스틱으로 분류해 버리면 안 된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 같은 생분해 플라스틱의 단점을 보완한 물질. 생분해 수지와 산화제 등을 첨가해 만들며 자연에서 분해되기까지 2~5년이 걸린다. 생분해 플라스틱보다 생산비가 저렴한 것도 큰 강점. 재활용도 가능해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분리 배출하면 된다. 홍지의 제품 중 70퍼센트 이상이 바로 이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이다.

인터뷰

김관수 홍지 대표

"녹색성장 · 환경보존 위한 장기 투자"



친환경 기업 '홍지'의 모체는 1992년 설립된 '홍지미술'이다. 김관수 대표가 언론사에서 출판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세운 회사로, 출발 당시는 상업 인쇄와 POP(Point of Purchase · 구매시점)광고 제작을 전문으로 했다.

"처음엔 POP 제품을 종이로 만들다가 차츰 PVC, PET 등으로 제품 소재를 다양화하면서 환경문제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말고 좀 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이용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다 아예 친환경 소재를 개발해서 제품을 생산하기로 결심했지요."

그 과정에서 인쇄와 POP광고에 집중됐던 제품군도 현재와 같이 다양한 포장재와 생활용품으로 확장됐다. 하지만 친환경 사업 분야는 당장의 수익을 노렸다기보다 녹색성장과 환경보존을 위한 장기적 투자다. 김 대표가 홍지미술로 축적해온 자본을 친환경 사업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홍지의 경쟁력이 특히 빛을 발하는 곳은 해외시장. 환경 선진국이라는 유럽 국가들보다 우수한 기술력과 낮은 생산원가를 앞세워 급속한 수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홍지는 의류용 비닐포장재 원료를 월마트 인도네시아 공장에 수출하고 있고, 일본에도 자연분해 재질 농업용 테이프를 제조 판매 중입니다. 2012년까지 연 1천억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아쉬운 점은 많은 국내 친환경 업체의 제품들이 품질이 월등한데도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판로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해외 선진국에서 친환경 제품이 각광을 받는 만큼 앞으로 국내에서도 이들 제품과 관련업체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김 대표의 바람이다.



홍지의 생산라인이 있는 파주 공장.

애들이 쓰는 건데… 유해물질 있으면 어쩌지?

유의사항 의무 표기 등 학용품 안전기준 마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크레용, 크레파스, 연필 등 17개 품목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2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술표준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45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사는 주부 송주희(35) 씨는 얼마 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지우개를 입에 넣고 노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향기 나는 지우개를 호기심에 입에 넣어 본 것이다. 송 씨는 지우개에 아이의 건강에 좋지 않은 물질이 들어 있으면 어쩌나 걱정이 됐지만 어떤 제품에든 꼭 있어야 할 성분 표시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

영·유아용 완구는 아이들이 입에 넣고 빠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주부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구입하게 된다. 반면 초등학생용 학용품은 '설마' 하는 생각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신기한 물건에 호기심을 보이는 저학년의 경우 지우개나 연필을 입으로 가져가기 예사다. 학용품은 아이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것이라 유해성 여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마킹펜류와 분필형 제품은 새롭게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발암성 물질 또는 발암성 추정물질 함유 유기용제 잉크 사용을 금지했다. 학용품용 물감, 파스텔 등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피부에 사용 금지'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동아DB

기술표준원은 학용품을 구입할 때 사용상 유의사항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도록 권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어린이들이 쉽게 사용하는 4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톨루엔 같은 발암성 물질 또는 발암성 추정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이들 17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지난 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 학용품은 크레파스, 연필류 및 연필심, 샤프연필 및 샤프심, 지우개, 파스텔, 수채그림물감, 분필, 연필깎이, 팔레트, 필통, 책받침,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찰흙, 문구풀 등이다. 지금까지는 지우개, 크레용, 찰흙 등 일부 학용품에 대해서만 중금속, 프탈레이트가소제, 독성향료의 사용이 제한돼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그 외의 학용품에서도 유해물질 등이 검출됨에 따라 거의 모든 학용품으로 대상 기준을 확대했다.

"KC마크 확인하면 안전… 인터넷에서도 확인 가능"

특히 10개 제품에서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된 마킹펜류(사인펜, 매직펜, 펠트펜 등)와 분필형 제품은 새롭게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발암성 물질 또는 발암성 추정 물질 함유 유기용제 잉크 사용을 금지했다. 이 밖에도 학용품용 물감, 파스텔 등을 신체 분장용으로 사용한 소비자의 피부질환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피부에 사용 금지'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기술표준원 이현자 연구원은 "학용품을 구입할 때 품명, 제품모델, 제조자 또는 수입원, 제조국, 해당 업체 주소와 전화번호, 사용상 유의사항 등 의무적으로 표시돼야 할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국가통합 인증마크인 KC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면 안전하다"고 학용품 구입 요령을 전했다.

또한 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 포털시스템 '세이프티코리아'에 접속하여 구입한 학용품의 모델명을 검색해도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어린이용품 합동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리스트도 제품 사진과 함께 공개한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세이프티코리아 www. safetykorea. kr

김수환 추기경 선종 1년… 장기기증 서약자 크게 늘어

18만명의 아름다운 약속

서울성모병원



동아DB



1990년 각막기증 신청서에 서명하고 있는 고 김수환 추기경. 김 추기경의 선종은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불을 붙였다.
오른쪽은 지난해 9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장기기증의 날' 행사 때 생명의 나무에 매단 장기기증 서약서들.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정수(18·경기 고양시) 군은 지난 1월 사망 및 뇌사 시 장기기증을 서약했다. 동기는 단순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행복해서'다.

"올 초 난생처음으로 헌혈을 해봤는데, 남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토록 기분 좋은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을까 생각하다가 장기기증을 떠올렸지요. 그래서 당장 절차를 알아보고 서약을 했어요."

김 군의 서약은 주변에도 영향을 미쳤다. 처음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며 말리던 김 군의 아버지는 결국 아들에게 설득되어 기증 서약을 했다. 김 군의 장기기증 사실을 들은 친구들 역시 장기기증에 마음이 기울고 있다. 한 사람의 서약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선종한 고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기증이 그러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장기기증을 희망한 사람은 18만5천46명. 2008년 7만4천8백41명의 2.4배에 이르고 2000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최대 수치다. 해마다 증가 추세이던 장기기증 희망자는 2006년 9만여 명을 정점으로 약간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지난해 김 추기경의 각막기증이 생명나눔 운동에 다시금 불을 붙인 것이다.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되는 데는 사회지도층 인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관리센터 정흥수 과장의 말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에 장기기증 문화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장기기증을 희망한 사람은 59만3천6백79명. 관리센터가 집계를 시작한 2000년의 4만6천9백38명에 비해 12.6배나 된다. 생존 시 장기기증도 크게 늘었다. 생존해 있을 때 이식하는 장기로는 신장, 간, 골수 등이 있는데 그중 골수를 기증하겠다는 등록자는 2000년 4만2천5백90명에서 지난해 말 18만8천7백22명으로 증가했다.

장기기증 문화 확산… "사회지도층 인사 역할 중요"

장기기증 희망자가 늘면서 이식 수술 건수도 수직 상승했다. 2000년 1천3백6건이던 것이 2005년 2천86건, 2009년 3천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까지 모두 2만1천5백1건의 장기이식이 이뤄졌다. 뇌사 장기기증을 통한 이식수술도 10년 만에 5배로 늘었다. 2000년 52명의 기증에 따라 2백33건의 이식수술이 시행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뇌사자 2백61명의 기증에 1천1백35건의 장기이식 수술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지금도 장기기증을 기다리며 애타게 도움의 손길을 찾는 이들이 많다. 지난해 말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는 신장 8천4백88명, 간 3천5백1명, 골수 3천4백26명, 각막 1천97명 등 모두 1만7천55명이다. 관리센터 정흥수 과장은 "한 사람이 뇌사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할 경우 9개의 장기를 새로운 생명에 옮겨 심을 수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G

글·김정희 객원기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Tel **02-2277-9950, 9952 www.konos.go.kr**



신사임당 예능대회 수상(1977)을 계기로 자수공예 전문가의 길에 들어선 서복자(왼쪽) 씨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자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랑채 전통공예의 멋에 흠뻑

장인들 작품 시연 '문전성시'… 즉석 판매도

장인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힌다. 그래도 눈빛은 떨리는 법이 없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자수를 놓으며 손가락 끝에서 산을 만들고 꽃을 피워낸다. 한자리에서 몇 시간을 꼼짝도 않고 숨결을 고르며 자수를 아로새기는 장인 앞에서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런 정성으로 만들어진 장인의 작품은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고 고결해 보인다.

전통공예는 우리 고유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빠르고 편한 시대로 변모해가면서 전통공예에 대한 인식이 예전만 못해가는 게 현실. 이에 전통공예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통공예 장인과 기능인들이 발 벗고 나섰다. '효자동 사랑방'이라 불리던 '청와대사랑채'에서 전통공예 시연회를 1년간 무료로 보여주기로 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전통공예 시연회는 자수, 매듭, 도자, 한지, 국악기 등 다양한 전통공예 분야의 전문가 70여 명이 매일 돌아가며 국내외 관람객에게 전통공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시연 두 달째를 맞이한 이곳은 벌써 하루 1천~2천명의 관람객이 찾을 정도로 문전성시. 관람객의 80퍼센트 이상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덕분에 이곳을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관광명소'로 알려지고 있다.

전통공예 시연회를 주최한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하종철 회장은 "우리 문화의 뿌리인 전통공예를 외국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며 "따스한 봄날 전통공예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우리 문화의 소중함도 절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통공예 시연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에서 무료로 열린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청와대사랑채 Tel 02-723-0300 cwdsarangchae.kr









1 다양한 색상의 한지 노리개가 시선을 끈다.
2 서복자 씨가 만든 아름다운 자수 병풍. 1년간 수를 놓았다.
3 국내외 관람객들이 전통공예 시연회에 참여해 장인들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4 한지로 만든 보석함. 정교하고 화려한 한지 공예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3월 청와대사랑채 전통공예 시연 행사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1 매주 월요일 휴관	02 방극완(나전) 임순국(악기)	03 유복열(지도교수) 김성혜, 박상미 등 (다도) 최영설(불화)	04 배을희(단청) 김한섭(금속·은장도) 한만숙(금속)	05 이보열(은대공) 조성임(한지)	06 서문, 강은수 (박공예) 손경인,김인규 이수복(목공예)
07 정덕순(민화) 조지연, 김은아, 김옥녀(한지)	08	09 이창훈(목조각) 채수자, 안옥임 (한지)	10 방극완(나전) 민병희(난각) 임순국(악기)	11 노미자(전통매듭) 이호정, 이정연 (도자기)	12 이강연(목공) 신정철(전통탈) 조길례(목채색)	13 유복열(지도교수) 서문성 등(다도) 김갑용, 김용희 (도자기)
14 최석현(나전주름) 장춘철, 임영묵 (나전끊음) 김정옥(연)	15	16 홍승국(금속) 박명자(한지)	17 유복열(지도교수) 박상미, 김우용 서문성 등(다도) 전성근(도자기)	18 김명균(부채) 소순주(악기·북)	19 김환경(옻칠) 김현선(한지)	20 장춘철(나전) 이유미, 신상희, 김수경(악기)
21 조문기(금속) 김용철, 지혜승 (목공예) 이현승(옻칠)	22	23 서복자, 차정숙, 박영주(자수) 유현순, 김은숙 (한지)	24 백용식(은대공) 정태수(금속) 박영호(목조각)	25 장금숙, 이금자, 박진희(완초) 박애선(천연염색) 김선희(섬유)	26 김정선, 강진영 (섬유) 박원미(한지그림)	27 유복열(지도교수) 박춘연, 윤정란, 한미희(다도) 임태복(목가구)
28 전수걸, 김영성 (도자기) 박희진(옻칠) 박정숙(천연염색)	29	30 이보열(은대공) 김명희, 장춘자 (한지)	31 유복열(지도교수) 김성혜, 박상미 등 (다도) 한만숙(금속)			



환절기 피부관리 노하우

하루 1.6리터 물을 마시자

건조하고 추운 겨울 내내 피부를 잘 지켜냈다고 방심하지 말자. 겨울보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가 피부에 더욱 강력한 적이다. 짧은 환절기를 잘못 보내 영원히 피부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현명하게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조영철 기자

피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밀히 관찰하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다. 어느 순간 각질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생기며, 수분이 다 빠져나간 듯 피부가 얄팍해지면서 축축 늘어지는 복합적인 현상이 1년에 두 번 나타나는 것.

결코 반갑지 않은 이러한 현상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두드러진다. 이는 일교차가 심하고 공기가 건조한 데다 기후변화를 신체 리듬이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날씨만 탓하며 이를 방치했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 피부를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 두면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다음 생활 수칙을 잘 지키면 환절기, 아니 1년 내내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1 물을 많이 마시자

물 마시는 습관은 피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몸으로 들어간 수분은 가장 먼저 뇌에 공급된 후 폐와 간 같은 장기, 근육과 뼈, 피부에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물을 조금만 마시면 피부에는 충분한 수분이 전달되지 못한다.

더구나 아기는 피하조직 수분 함유량이 88퍼센트인 데 반해 20대는 68퍼센트, 60대를 넘어서면 40퍼센트 이하가 된다. 나이 들수록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인은 하루에 1.6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눠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다.

2 세안과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차가운 몸을 녹이려고 뜨거운 물로 샤워나 세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질 뿐 아니라 모세혈관이 급격히 확장돼 파열될 위험까지 있다. 반신욕이나 목욕 때의 물 온도는 섭씨 40도 정도가 적당하고, 샤워나 세안은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좋다. 또 마무리는 항상 찬물로 해야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 피부 탄력을 높일 수 있다.

3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낮 동안 손상된 피부가 재생되지 못해 피부 결이 거칠어지고 탄력도 떨어진다. 밤샘 후 피부 수분은 15~18퍼센트 감소하고 유분은 20퍼센트나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그 증거. 피부 재생은 밤 12시와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일어나니 극심한 일교차로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고 싶다면 자정 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4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으로 관리하자

각질이 일어나고 피부가 건조해졌다고 아무 각질제거제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얇은 피부에 입자가 굵은 각질제거제를 사용하면 피부가 더욱 예민해질 수 있다. 이때는 입자가 아주 미세하거나 과일산 성분(AHA)이 각질을 녹여주는 제품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부드러운 천이나 수건을 미온수에 담갔다가 살짝 짠 후 얼굴에 1분가량 올려두고 살살 문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피부가 건조해진 것이 피부의 수분뿐 아니라 유분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피부 타입을 확실히 알아두자. 만일 유·수분 밸런스가 모두 무너진 경우라면 무조건 질감이 가벼운 수분제품을 찾기보다는 유·수분 밸런스를 동시에 충족해주는 쫀득한 느낌의 제품을 사용하길 권한다. G

글 · 최향진(코스모폴리탄 뷰티 에디터)

봄이 더 무서운 협심증

날씨 풀린다고 갑자기 운동하면 큰일나요!



조영철 기자

추운 겨울 야외 운동은 가볍게 하더라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겐 자칫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차가운 기운이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안 그래도 좁아진 혈관을 더욱 조이거나(협착) 완전히 막아버릴(폐색)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심장마비나 돌연사 같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요즘 날씨가 조금 풀리자 산과 공원, 운동시설마다 겨우내 쌓인 군살을 빼기 위해 조깅이나 배드민턴,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하다. 과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고, 운동량을 급격하게 늘리는 게 건강에 바람직할까? 그에 대한 답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평소 꾸준히 운동해온 사람이거나 심혈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OK'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겐 'NO'다. 협심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평소 운동량 적은 사람·기저질환 있으면 더욱 조심해야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이하 심평원) 2005~2009년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심증 진료인원 증가율은 매년 2월(12월과 1월도 대동소이)보다 3월에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대비 3월 증가율은 2005년 16.3퍼센트, 2006년 10.5퍼센트, 2007년 9.9퍼센트, 2008년 8.6퍼센트, 2009년 6.4퍼센트에 달했다. 5년간 월평균 증가율이 0.8퍼센트인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증가율이다.

심평원은 "협심증은 추운 겨울철에 증상이 악화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발생 건수는 매년 3월에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추운 겨울에 운동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다가 날씨가 풀리면서 갑자기 심한 운동을 의욕적으로 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추정했다.

협심증은 심장근육(심근)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 등에 의해 심각하게 좁아져 생기는 흉통을 가리키는데, 운동을 하면 흉통이 더욱 심해진다. 만약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가슴 복판이 쥐어짜듯 아프고 숨이 찬 증상이 계속된다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증거. 이 단계에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증세가 더욱 심해지면 관상동맥이 완전히 폐쇄돼 심근경색을 일으키며 끝내 사망하게 된다.

협심증의 원인은 가족력, 고령 등 매우 다양하지만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이 대표적 기저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즉, 고령화사회에 들어서고 심혈관계 질환과 만성질환이 늘어나는 만큼 협심증 환자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결론. 심평원의 통계도 이를 증명한다. 심평원의 분석 결과 2004년에서 2009년까지 협심증 진료인원은 연평균 4.7퍼센트, 진료비는 13.7퍼센트가 각각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2009년을 기준으로 50세 이상이 84.3퍼센트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런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개별 질환부터 치료하고, 갑작스런 운동이나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다. 만약 흉통이 나타나면 전문의를 찾아 심전도, 운동부하 심전도, 관상동맥 촬영술 등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고영국 교수는 "협심증으로 진단되면 혈관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 또는 좁아진 혈관 내로 풍선을 넣어 강제로 혈관을 넓히는 '풍선성형술', 그물망을 좁아진 혈관 부위에 삽입하여 넓혀주는 '스텐트 삽입술', 또는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수술' 등을 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G

글·최영철(주간동아 기자)


4대강 살리기
제 42 화
글·이연수 그림·이호
형님!
형님?
꼭두새벽부터 뭔 일이가?
이것 좀 보이소.
?
달성보 준설토 오염도가 기준치 이내라꼬?
암만요.
비 때문에 농사 망칠 일 이제 없을 낍니다.
응? 그게 무슨 말이고?
아니, 형님은 신청 안 했습니꺼?
뭐꼬, 무슨 신청?
저지대 농지를 준설토로 메워 높인다 카면서 신청자 접수하지 않았는교?
농지
수량 증가
준설토 성토
준설토가 많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게 안된다 해싸서 걱정 많이 했는데
농지 성토(盛土)에 쓸 수 있다카니 이제 한시름 놨습니다.
그걸 왜 이제 가르쳐주는 기가? 의리도 없는 동생놈아!
악~악~ 살려주이소!
아무튼 남자들은 애나 어른이나….
쯧 쯧

해안선 따라 자전거로 전국 1만 리

자전거 코스 가이드북 〈두바퀴路 바닷가路〉

한국어촌어항협회





〈두바퀴路, 바닷가路〉에는 전국 해안가 자전거길뿐 아니라 인근 어촌과 어항, 맛집, 숙박지 등도 실려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동해, 서해, 남해의 특성에 따라 풍광도 특산물도 다르다. 해안선을 따라 고기잡이 항구가 줄지어 있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 아름답고 시원한 바다, 계절별로 싱싱하고 맛있는 수산물, 훈훈한 인심이 넘쳐나는 어촌은 도시인들에게는 즐거움과 휴식의 공간이 된다.

이런 매력적인 어촌을 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이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한국어촌어항협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해안선 1만리(4천 킬로미터) 자전거길을 발굴해 펴낸 〈두바퀴路 바닷가路〉다.

책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달려보자. 강화도에서 남쪽으로 해안도로를 따라간다. 시흥 월곶항과 화성 전곡항을 지나 아산 방조제를 넘으니 충남이다. 태안, 서산, 보령, 서천의 아기자기한 바닷길을 지나 금강 하굿둑을 넘어 전북으로 들어선다. 새만금 방조제에 감탄하며 영광 백산교를 거쳐 무안 외덕마을을 지나면 어느새 서해의 끝인 목포항이다.

진도대교를 넘어 땅끝마을 해남과 아름다운 섬 완도를 지나 탄성이 절로 나오는 강진 바닷길을 달린다.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을 지나면 그림 같은 순천만이 펼쳐진다. 동백꽃으로 유명한 여수를 거쳐 한려수도 남해, 거제, 통영을 지나면 마산이다. 남해안 여정의 종착지인 부산항에서는 북으로 올라간다.

문무대왕릉을 바라보며 포항 호미곶을 거쳐 영덕대게 명산지 영덕항으로 들어가자. 울진, 삼척, 동해, 강릉, 속초, 수많은 항구와 해수욕장을 거느린 동해안은 풍광도 도로도 환상적이다. 파도 소리를 듣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려온 여정의 끝, 고성에 도착하면 통일전망대에 올라 통일된 한반도를 달리는 라이딩을 꿈꿔본다.

〈두바퀴路 바닷가路〉는 지난해 10월 결성된 해안선 자전거 탐사대의 U자형 탐사를 바탕으로 전국 해안가를 52개 구간으로 나눠 생생한 사진과 여행기를 담아냈다. 바닷가와 가장 가까운 자전거길을 발굴해 지도로 나타냈으며 자전거로 이동할 때 꼭 필요한 정보인 코스 가이드와 난이도, 등고표 등도 수록했다. 또 자전거길뿐 아니라 인근 어촌과 어항, 맛집, 숙박업소, 관광지, 즐길거리 등을 꼼꼼히 정리해 이 책 한 권이면 누구나 해안가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여행할 수 있다.

전국 해안가 52개 구간 생생한 사진·여행기 담아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최덕부 사무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대명사인 자전거 타기의 대중화와 함께 우리 어촌과 수산업의 매력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책을 발간했다"고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최 사무관은 또 "자전거로 우리나라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은 국토순례나 백두대간 종주 못지않게 국토 사랑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두바퀴路 바닷가로路〉를 바탕으로 앞으로 해안선 자전거길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온라인상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전거와 어촌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G

글 · 이혜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Tel 02-500-2329

Books

리스크 회피한 사회 더 큰 리스크 생긴다



위험사회와 새로운 자본주의

파울 놀테 지음 · **윤종석** 옮김 / **한울** · **2만6천원**

지난 20세기는 경제 호황기였다. 서방 선진국들은 성공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마련했고 훌륭한 사회·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두가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만 같았다. 그러나 세계가 점점 '신자유주의'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예상치 못한 21세기가 도래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누구든 언제라도 해고되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불안정한 신세로 전락했다.

'독일을 대표하는 두뇌'로 불리며 독일 메르켈 정부의 자문혁신위원으로 활동하는 파울 놀테 베를린 자유대학 역사문화학부 교수는 〈위험사회와 새로운 자본주의〉를 통해 지금은 '리스크를 감행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한다. 독일 역대 좌파는 물론 우파 정부도 당면한 리스크에 도전하기보다 회피해왔다. 리스크에 대한 회피는 국가적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나타났다. 취업 불안으로 대학 졸업을 연기하고, 기혼자보다 독신자가 늘어가는 이런 분위기는 '리스크 회피 사회'를 만들었다.

리스크를 거부하고 리스크가 높은 결정을 지연하려는 태도는 결국 안전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리스크'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다 보니 사회 안전망은 갈수록 느슨해졌고, 오히려 개인 간의 경쟁은 치열해졌다. 더 이상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대통령 권장도서… 리스크 적극 활용하는 '투자적 사회' 돼야

이처럼 저자는 리스크를 회피하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며 그 대안으로 '투자적 사회'를 제시한다. 투자적 사회는 리스크를 재앙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오늘의 슬픔보다는 내일의 희망을 기대하는 밝고 긍정적인 사회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책을 지난 설 연휴를 맞이해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권장도서로 추천했다. 이는 기회의 확대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국가는 기회를 넓히는 정책에 자원을 투자하는 '생산적인 국가'로 바꾸고, 각 개인들은 자주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해 '투자적 사회 복지국가'로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핵심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책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슬로건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새로운 각도에서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전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어떤 건축

최준석 지음 / **바다** · **1만5천원**



사람들에게 건축이란 부동산 아니면 고상한 예술이 되기 쉽다. 하지만 저자에게 건축은 제각각 사연과 이야깃거리를 담은 즐거운 주말드라마고 인간극장이다. 저자는 우리 주변의 건물들과 세계 유명 건축물에 얽힌 이야기를 친근하게 소개한다. 서울 선유도 공원, 쌈지길,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 등 길 위에서 만난 스물아홉 개의 건축물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건축과 예술의 교집합을 느낄 수 있다.

냉전의 역사

존 루이스 개디스 지음 · **정철, 강규형** 옮김 / **에코리브르** · **2만3천원**



냉전에 관한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뤘지만 간결하고 읽기 쉽게 썼다. 시대순으로 엮은 역사서가 아닌 주제별로 접근해 독자에게 재미를 더한다. 1980년대 이후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는 무너졌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신냉전의 기류가 본격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분단의 땅 한반도에 냉전이 여전히 살아 있다. 예일대 역사학과 석좌교수인 저자는 공포와 속임수로 인류를 위협에 몰아넣었던 냉전의 실체를 다양한 사건을 통해 보여준다.

언싱커블 에이지

조슈아 쿠퍼 라모 지음 · **조성숙** 옮김 / **알마** · **1만9천8백원**



모래알로 모래탑을 쌓다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모래알 하나를 얹어도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저자는 이런 물리학 가설인 '모래탑 가설'이 현대 국제 질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저자의 말대로 오늘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위기의 본질과 해결책을 모색한다.

선택

글과 그림 · 최영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선택한 결과이다.
– 스티븐 코비(미국 저술가)

21세기 新데렐라를 만나다

해설이 있는 발레 '신데렐라'

일시 3월 5~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장소 서울열린극장 창동
관람료 R석 1만5천원, S석 1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994-1469 www.sotc.or.kr



지난해 발레계의 화제작으로 손꼽힌 국립발레단의 '신데렐라'가 서울열린극장 창동을 찾는다. 이번 작품의 안무는 지난 2005년 몬테카를로 발레단과 함께 한 '신데렐라'로 국내 애호가들을 사로잡았던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가 맡았다. 마이요는 2008년 브누아 드 라당스 최우수 안무가상을 수상한, 현존하는 최고의 실력자 중 한 사람이다.

마이요의 '신데렐라'는 기존의 클래식 작품과 차별화된 무대를 선보인다. 무엇보다 원작을 색다르게 재해석한 점이 눈에 띈다. 극중 신데렐라는 원작에서처럼 수동적이지 않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다른 인물들에 당당히 맞서며 극을 주도한다. 신데렐라의 발에 유리 구두를 신기는 대신 맨발에 금가루를 묻히는 설정에서도 마이요만의 획기적인 연출력이 빛난다.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은 '캐릭터의 재창조'. 마이요는 신데렐라와 왕자로 대표되는 2인 주인공 구도에서 벗어나 신데렐라의 친부모와 계모 등 주변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되살려낸다. 원작에서는 볼 수 없는 신데렐라의 돌아가신 어머니는 이번 작품에서 신데렐라와 왕자의 사랑을 이어주는 신비로운 요정으로 살아난다. 두 집사와 언니들의 톡톡 튀는 캐릭터 또한 놓치기 아까운 볼거리.

국립발레단의 솔리스트 출신으로 이번 공연의 해설을 맡은 신현지 씨는 "발동작은 고전 발레의 테크닉을 지켜내지만 상체의 움직임은 현대적이고 독창적으로 안무한 이번 작품은 30여 명의 무용수가 모두 주인공이라 해도 좋을 만큼 변화무쌍하다"며 "친절한 해설까지 곁들인 이번 공연은 관객들이 어렵게만 여기던 발레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2010 리사이틀

일시 3월 5~6일 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318-4301 www.sac.or.kr



유니버설음반사의 클래식 소속 연주자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솔로 5집 앨범 발매를 기념해 리사이틀을 연다. 오닐은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을 수상하고 그래미상 '베스트 솔리스트' 부문 후보에 오른 몇 안 되는 비올리스트 중 한 명. 이번 공연에서 오닐은 히나스테라의 '슬픈 노래', 구아스타비노의 '장미와 버드나무',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등의 명곡을 깊고 따스한 그만의 비올라 음색으로 선보인다.

창작무용 '대전 블루스, 0시 50분'

일시 3월 5일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704-6420 www.ntok.go.kr



대전시립무용단이 2008년 '전통품의 향기' 이후 2년 만에 서울에서 펼치는 공연. 지난해 11월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초연한 이 작품은 당시 막을 올리기 전부터 공연장 전체에 경적을 울리고, 공연 안내원들이 모두 열차 승무원 의상을 입고 관객을 맞이하는 등 다양한 시도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공연 중에는 1959년 가수 안정애가 발표한 트로트곡 '대전블루스'가 배경음악으로 사용돼 4060세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크고 작은 홍수를 겪었습니다

속타는 가뭄도 만났습니다

은어가 펄떡이는 강은

옛날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더러워진 강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살리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자손 대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세계에 우뚝 선 대한민국

이승훈이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1만미터에서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한 지 7개월, 1만미터 도전 3번째 만에 거둔 성과다. 그의 놀라운 선전에 시상식에선 '가마 축하세리머니'도 펼쳐졌다.